

71.0
2003
1/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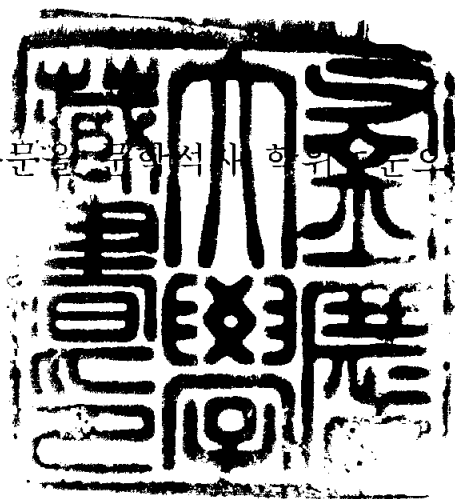
문학석사 학위논문

조기천의 『백두산』 연구

- 구조와 이데올로기 분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동 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지 선

김지선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12월 일

주 심 송 명 희



위 원 강 인 수



위 원 조 동 구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2
3. 연구 방법	7
II. 초기북한문학의 동향과 조기천의 활동	10
1. 시대적·문학적 배경	10
1) 고상한 리얼리즘과 『백두산』논쟁	11
2) 민주기지 건설과 애국주의·국제주의 사상	19
2. 조기천의 생애와 작품 활동 양상	21
III. 『백두산』의 구조 분석	31
1. 『백두산』의 서사 구조 분석	31
1) 진인 출현설의 이야기 구조	32
2) 시간과 공간의 유기적 구조	39
3) 경험적 서사체와 허구적 서사체의 교직	43
2. 인물의 형상화	51
1) ‘민중의 영웅’ 그리기	51
2) ‘민중적 영웅’ 그리기	54
3. 서술과 율격구조	57
1) ‘절대적 과거’의 현재화	57
2) 해방의 서사와 공민적 서정의 결합	62
3) 민요조 율격과 구술성	66

IV. 『백두산』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분석	71
1. 서사시의 이데올로기	71
2. 미래지향의 유토피아 비전	73
V. 문학사적 의의	83
참 고 문 헌	89
Abstract	94

I. 서 론

1. 연구목적

근현대사에 있어 우리 민족 최대의 역사적 과제는 분단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우리의 역사에서 분단은 강한 질곡으로 다가와 민족적 전망을 흐리게 하였으며, 문학도 분단의 굴레에 얽매어 진정한 민족문학의 정형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해방이후 분단극복의 문제는 민족의 제반의 삶에 있어 주요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역사적 현장의 정신적 기록인 문학도 역시 ‘분단’이라는 굴레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우리 민족의 전망은 통일 시대를 예비하고 있으며 통일은 우리 민족의 모든 삶의 화두가 되었다. 문학도 이에 예외는 아니어서 북한문학에 대한 남한의 관심은 근래에 들어서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문학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북한문학이 체제의 도구화에 지나지 않으며, 온통 정치적 선전과 개인의 우상화를 위해서만 종사하는 문학이라 인식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문학은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 있으며 문학의 지나친 정치과잉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북한문학에 대한 경직된 편견과 선입적 비판은 북한문학에 대한 이해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고 말 것이다. 반세기를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아온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잣대와 시각으로 상대방의 문학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북한의 문학적 성과들은 불가피하게 그 가치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민족문학 논리 위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민족언어로서의 순결성이 한 수준 높게 간직되어 있는 언어 표현물이라는 사실’¹⁾을 견지해야 한다.

1) 목원대 국어교육학과 위음, 『북한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2, p.17.

통일시대의 문학은 남한문학과 북한문학이 따로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민족 문학일 것이다. 그러나 이질적인 남·북한의 문학을 하나의 민족문학으로 통합해내는 것을 매우 지난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논문에서는 초기북한문단의 최고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기천의 『백두산』을 통해 북한문학 이해의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서사시 『백두산』은 북한의 ‘새 조국 건설’의 이념이 잘 반영된, 민족주의에서 국가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지금의 북한문학을 파악하기 위한 첫 관문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남한과 북한의 문학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방공간의 문학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백두산』의 객관적인 연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2. 연구사

조기천은 수령형상화의 전범이라는 『백두산』의 창작가이며 북한문학의 핵심에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88년 월북작가에 대한 해금조치가 있기까지는 남한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리하여 『백두산』에 대한 연구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지만 이 연구의 과정은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남한의 연구자들의 한계와 성과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89년 『백두산』시집의 출판을 시작으로 남한에서 진행된 『백두산』의 연구성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백두산』에 대한 연구 중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것으로, 주제적 접근을 시도한 임현영²⁾, 김재홍³⁾, 노귀남⁴⁾ 등의 글이 있다. 이들은 『백두산』에서

2) 임현영, 「민중적 영웅주의의 구현」, 『백두산』시집, 실천문화사, 1989.

3) 김재홍, 「조기천의 백두산론- 그 진행형의 테마」, 『문학사상』, 1989.6. ; 「조기천의 백두산, 민족혼의 상징」, 『한국현대문학의 비극론』, 시와 시학사, 1993.

의 주인공은 김대장보다는 민중들의 표상인 꽃분과 철호이며 이들을 통해 민중영웅주의를 표현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백두산』은 보천보 전투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도 결코 이 사건 하나만에 국한시키지 않은 항일 투쟁의 보편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한다. 즉 『백두산』은 특정사건의 특정인물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민족적으로 일반화된 민중주체의 항일투쟁을 전형화 시킨다는 것이다. 『백두산』은 ‘백두산=민족=민중’이라는 등가인식을 통해서 민족주체성을 확인하고 민중적 세계관을 확립하려는 중심의도가 작품 자체의 예술성과 결합되어 민족문학의 한 성과를 거둔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백두산』을 수령형상화문학으로 바라보는 윤재근·박상천⁵⁾, 권영민⁶⁾, 성기조⁷⁾, 박태상⁸⁾, 선우상열⁹⁾의 견해가 있다. 이들은 『백두산』의 문학적인 성과보다는 이 작품이 북한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한가가 초점이 되어 있다. 이 시는 김일성을 절대화하기 위해 서사시가 지녀야 할 기본 요건인 리얼리티마저도 포기하고 김일성을 초인간적이고 절대화하고 최대한 미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였다.

셋째, 『백두산』을 수령형상화문학이라고 보는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나 북한문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역사적,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재용¹⁰⁾, 신형기·오성호¹¹⁾, 백지연¹²⁾이 있다. 초기 북한문학의 형성 과정에서 『백두산』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해방공간은 새로운 제도의 성립 속에서 새로운

4) 노귀남, 「인민성의 문제로 읽은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 조기천과 백남룡을 중심으로」, 『경희어문학』, 제17집, 경희대국문학과, 1997.2.

5) 윤재근·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Ⅱ』, 고려원, 1990.

6) 권영민, 『북한의 문학』, 통일문제연구7, 1990.

7) 성기조, 『북한비평문학 40년』, 신원, 1990.

8) 박태상, 『북한문학의 현상』, 깊은샘, 2002.

9) 선우상열, 『광복 후 북한현대문학 연구』, 역락, 2002.

10)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_____,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사, 2000.

11)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12) 백지연, 「항일 투쟁의 영웅화와 민중적 연대」, 『북한문학의 이해』, 2000, 청동거울.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새 역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한 여러 이야기의 하나로『백두산』이 창작되었다고 본다.

넷째, 장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견해로 김대행¹³⁾, 김재홍¹⁴⁾, 장부일¹⁵⁾, 김준오¹⁶⁾, 박정호¹⁷⁾, 이명재¹⁸⁾, 오성호¹⁹⁾ 등이 있으며『백두산』이 서사시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작품임을 확인해 주었다. 이들은 남한의 장르체계와 비교하여 북한문학에서는 서사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류에 해당하며 결국으로『백두산』을 언급하고 있다. 김준오는 8.15해방 이후 문학사의 첫 단계는 어떤 정체의 국가를 세우느냐가 급선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백두산』은 영웅서사시라기보다는 일종의 건국서사시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오성호는 송가가 김일성이 해방의 주체이자 새 역사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이라면, 서사시는 김일성이 어떻게 해방과 새 역사의 주체가 되었는지를 밝히는 역할의 차이를 가진다고 하였다. 장부일, 박정호는 조기천의 시작품이 장시로 편향되어 있음을 살피고 이는 비교적 빠르게 순간 순간의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시 장르로서의 특성과 혁명과업, 역사적 전통·이념을 설파하고 교화하고자 하는 선전의도와 대중의 흥미와 관심의 제고 등이 상승 작용하여 선택된 결과로 보고 있다.

다섯째, 백두산의 상징성과 연결하여 접근한 연구로 김열규²⁰⁾, 신동호²¹⁾의

13) 김대행, 『북한의 시가문학』, 문학과 비평사, 1988

14) 김재홍, 「광복 50년 북한 시의 지속과 변화」, 『한국 현대문학 50년』, 민음사, 1995.

15) 장부일, 「한국 현대 장시의 전개양상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21집, 1996.2.

16) 김준오, 「조선족문학, 한국문학, 북한문학의 동질성과 이질성」, 『한국문학논총』, 제20호, 1997; 「현대 서사시의 선택」, 『한국 서술시의 시학』, 태학사, 1998에 재수록.

17) 박정호, 「조기천 시작품론」, 『한국어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18) 이재인, 『북한문학의 이해』, 열린길, 1995.

19) 오성호, 「북한 시의 형성과 전개 과정」, 『북한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2.

20) 김열규, 「북한문학의 특성과 남북문학의 교류전망」, 『문학사상』, 1989.6.

21) 신동호, 『한국시에 나타난 백두산 상징 연구 -서사시, 조기천의 백두산, 고은의 백두산, 김성희의 장백산아 말하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9.

논문이 있다. 신동호의 글은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 조선족의 문학에 나타난 백두산 상징성 연구로 조기천의 『백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한 첫 번째 논문이다. 백두산은 고대부터 우리민족의 발상지로 근본뿌리가 되며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게 되었고 근원적으로 우리민족 정서의 바탕을 이루었다. 분단체제라는 현대사의 한 지점에서 백두산은 남한과 북한에서 각기 다른 상징체계를 갖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상징체계로서 남한에서는 4.19를 통해 민족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면서 민족정신과 통일의 상징체계로 되었다.

47년 이후 북한에서의 조기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문학개론서와 50, 60년대의 자료들 속에서 그의 문학사적 위치를 엿볼 수 있다. 객관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그 전말을 살펴볼 수 없음이 이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나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북한의 문학은 당의 지도를 받아서 형성되는 문학이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학적 성과는 당이 규정하고 있는 문예정책과 밀접한 관련 하에 이루어진다. 『백두산』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 문예정책에 따라서 시기별로 출판되었던 문학사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다음의 네 가지 책들에서 『백두산』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평가를 엿 볼 수 있다.

『조선문학통사(하)』²³⁾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과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한 고귀한 업적으로 이루어낸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대표

22) 초기북한문학에서 이루어졌던 『백두산』에 대한 평가는 이선영·김재용 편, 『한국현대문학 비평자료집』 1권~8권, 태학사, 1994에 수록된 글들에서, 전후 북구와 사회주의 건설을 기치로 하는 53년 이후의 것은 문학개론서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문학적 평가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하여 후자의 것에 나타나는 『백두산』의 연구 결과만을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조선문학사 관계 북한의 주요 학위 논문 가운데 송순호,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83이 있으나 아직 남한에서는 볼 수 없다.

2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하』, 북한: 과학원출판사, 1959. 남한:인동(영인), 1988.

적인 작품으로 『백두산』을 보았다. 이 책에서는 김대장은 적에 대한 가차없는 투지와 대담무쌍한 용맹심을 가진 항일유격대의 영장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김대장과 인민과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조선문학사4권』²⁴⁾, 『조선문학개관』²⁵⁾에서는 북한에서 67년 이후는 주체문예이론의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며 수령의 교시로 설정되는 사회적 지표에 따라 문학사도 체계화된다. 때문에 이 두 책에서 『백두산』에 대한 평가는 비슷한 논지로 펼쳐져 있는데 한마디로 『조선문학통사』에서 강조되던 민중성에 대한 평가가 ‘인민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수령’을 따르고 그 길에 인민의 민족적 존엄과 행복이 있다는 식으로 평가의 방향이 바뀌었다.

『문학분석론』²⁶⁾에서는 『백두산』은 해방 직후에 쓴 시로서 당의 유일사상이 제일 철저히 구현된 시라고 평가하였다. 『조선문학개관』에서는 『백두산』에 대한 작품 분석보다는 수령관을 중심으로 문학적 의의나 언어표현 등을 해석하였다면 『문학분석론』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긍정적 인물들의 영웅적 투쟁을 부각시켰다.

작가론으로는 이정구²⁷⁾의 글이 있다. 조기천의 시에 나타나는 애국주의사상을 일관되게 풀어내고 있으며 서정시, 서사시, 서정서사시 장르별로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상이 남한과 북한에서 이루어진 『백두산』의 연구들이다. 남한이나 북한에서 이루어진 백두산의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평가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일면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남한에서의 문학에 대한 정치적 관여가 북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당의 문예정책이 변화에 의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작품의 해석이 달라지는 북한의 상황이나 남한에서 90년대 관변적인 문학연구에서 비방과 비판을 위한 연구는

24) 사회과학연구소, 『조선문학사4권 1945~195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25)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II』, 북한: 사회과학원출판사, 1986. 남한: 인동(영인), 1988.

26) 리종원, 『문학개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27) 이정구, 『시인 조기천론』, 문예총출판사, 1953(영인).

결국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봤을 때 『백두산』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에 사회,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 너무 크게 좌지우지되는 ‘선택적 오류’가 범해지고 있다. 또한 편견에 의해 어느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어서 주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창작 당시의 시대적 현실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백두산』의 주제사상을 찾고자 한다. 시는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로서 『백두산』의 평가는 분명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한편, 하나의 작품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 외적 접근과 작품 내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방공간의 작품 외적인 현실이 문학이 형상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어떻게 반영되어 작품의 내적 구조와 상동관계를 가지게 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골드만에 따르면 하나의 예술작품에 숨어있는 개념체계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진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작품의 단위를 구성하며 또 한편으로는 한 사회집단의 의식인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개인으로서의 한 작가의 산물이 아니라 한 집단 또는 계급의 집단적 의식, 이해관계, 사회가치를 드러낸다. 작품들은 한 집단의 의식, 즉 세계관을 일관성 있게 표현하며 작가란 한 사회집단의 가능 의식의 최대치를 구현하는 상상적 세계를 창조하고 표현하는데 적합한 형식을 발견하는 자이다. 그 결과 작품은 그것의 내용이 사회 집단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반면 그것에 걸맞는 형식의 발견은 작가의 몫이 되므로 사회적인 동시에 개인적인 표현이 된다.²⁸⁾ 즉 사회적 개인으로서의 작가가 가

28) 홍성호, 『문학사회학, 골드만과 그 이후』, 문학과 지성사, 1995, p.53.

지는 세계관에 의해 작품과 사회는 구조적인 상동성을 지니게 된다.

해방공간에 조기천은 혁명적 낙관성을 지닌 인물로 북한사회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사회집단의 가능 의식의 최대치를 구현한 자이며 이러한 의식에 걸맞는 문학적 형상을 발견한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집단의식의 최대치를 서사시로 구현하였다. 즉 조기천은 사회적 개인으로, 작가가 지니는 세계관에 의해 서사시 『백두산』과 해방공간은 구조적 상동성을 지니게 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II장에서는 해방공간의 현실과 작품활동 양상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세계관을 파악하고, III장에서는 그의 세계관을 통해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백두산』의 주제사상을 도출해 내고, IV장에서는 서사구조에서 담고 있는 주제사상이 해방공간의 현실 속에서 요구되는 이데올로기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되는지 살펴보겠다. 이러한 『백두산』의 이데올로기는 유토피아적 비전으로 제시되어 결국 서사시의 세계와 해방공간의 현실이 상동관계를 가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장의 각 절에서는 『백두산』과 관련된 초기북한문학의 동향으로 고상한 리얼리즘과 애국주의·국제주의 사상을 살펴보겠다. 『백두산』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창작된 것이다. 또한 조기천의 생애와 작품 활동 양상을 통해서 그의 문학적 세계관을 추출해 내고자 한다.

이러한 시대적·문학적 배경과 시인의 세계관은 III장의 서사구조를 이해하는 데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III장과 IV장에서는 서사시 장르가 가지는 특성으로서 서사구조를 분석하고 이 서사구조가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 전략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서사구조를 읽고 있는 층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이러한 구조 분석을 통해 당대 현실과 맺고 있는 대응관계를 찾아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서사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인물 형상화의 구조 속에 묻혀 있는 창작 의도를 찾아보겠다. 3절에서는 시점, 서술, 율격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IV장에서는 서사시 장르의 특징으로 『백두산』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겠다. 앞장에서 이야기된 서사구조가 서사시의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보겠다. 『백두산』의 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현실 개혁의지인 유토피아적 비전으로 제시되며 앞장에서 논의된 여러 서사적 장치들은 효과적으로 교양하는 기능을 하여 민중에게 ‘새 조국 건설’의 추동력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겠다.

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백두산』의 문학사적 의의를 몇 가지 추출해 내어 보겠다.

Ⅱ. 초기북한문학의 동향과 조기천의 활동

1. 시대적 · 문학적 배경

해방공간²⁹⁾의 북한문학은 현재까지로 이어지는 대체적인 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오늘의 북한문학의 이해는 초기북한문학 노선의 확립과정을 파악했을 때에 가능하다.

북한에서는 해방 후 3년을 평화적 민주 건설기³⁰⁾라고 일컫는다. ‘새 조국 건설’이라는 과제가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명확한 이념 지향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개혁이 혁명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시대의 실천 의지로서 초기 북한 문학은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된다.

첫째, 해방3년을 경계로 하여 북한에서는 창작방법론으로 고상한 리얼리즘과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기본원리로 한다.

29) 해방공간은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해방공간, 해방정국, 평화적 민주건설시기, 해방직후, 광복기, 해방전후, 미군정기, 민족해방투쟁기, 해방3년, 해방기 등이다. 이 중에 해방공간이란 용어는 비시간적인 개념으로 역사단위를 쓰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이 시기의 역동성으로 인해 여러 모로 적합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이 해방공간의 흐름을 대략 세 시기로 구분하여 좌우문단 형성기의 문학[1945.8~1946.12], 대립 심화기의 문학[1947.1~1947.12], 분단 확정기의 문학[1948.1~1949]으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해방공간은 분단의식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단정수립을 기점은 47년까지를 말하며, 북한의 토지개혁과 일련의 사회개혁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새조국 건설기’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초기북한문학’이란 크게 8.15이후부터 한국 전쟁의 휴전시기까지를 말한 것이다.

30) 이러한 시기 규정이 남한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평화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 절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이후의 시기인 전쟁기에 대비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며 또한 남한이 좌, 우의 이데올로기 각축장이 되었던 것에 비해 북한은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북한은 해방의 시작과 함께 김일성과 북조선로동당을 구심점으로 사회 제도 전반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던 때이다.

둘째, 48년을 기점으로 남과 북이 본격적인 대립구조를 가져가게 된 이후 북한문학이 가지는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사상이 있다.

1) 고상한 리얼리즘과 『백두산』논쟁

초기 북한문학의 형성과정에서 1947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47년 북한문학은 이른바 ‘고상한 리얼리즘’이라는 창작방법론을 주창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 북한문학을 규정하는 중요한 틀이 된다. 이 고상한 리얼리즘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은 북한문학이 남한과는 독자적인 문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은 아무런 반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거나 상충하는 흐름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응향』과 『백두산』논쟁이다. 『응향』과 『백두산』은 결국 같은 고리로 엮여 있는 논쟁들이다.

북한문학의 시원은 해방직후 1946년 3월 북조선예술총연맹을 결성에서부터 라고 볼 수 있다. 해방이후 북한에서의 개혁이 구체화되면서 조선의 실정에 부합하는 노선의 수립이 요청되었고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이 하나의 모델³¹⁾이 되어 중국의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아 일련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펼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1946년 초에 토지개혁을 필두로 하여 일련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한다. 1946년 6월의 노동법령, 7월의 남녀 평등법 그리고 8월의 중요산업국유화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북한의 민주개혁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주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후인 1946년 11월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일차적 민주 개혁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농민, 노동자의 해방과 국가주요사업국유화로 반제반봉건의 인민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기반이 다져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상개조, 의식개조였

31) 신두원, 「해방 직후 북한의 문학비평」, 『한국학보』, 제74집, p.43.

다. 그런 점에서 1946년 말에 북한은 일종의 사상의식 개혁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북한의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다.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은 당시 북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적 잔재를 없애고 새로운 사상으로 교양하는 일련의 사상운동이다.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의 문학창작방법으로 초기북한 문학비평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가 바로 리얼리즘론이다. 남한에서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과제로 하는 현실에 조용하는 진보적 리얼리즘을 내세웠는데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나 수용여부는 논하지 않고 대신 고상한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을 제출하고 있다. 그 용어의 발원은 '문학 예술인들은 민주개혁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앞으로 추진시키는 사상적 정치적, 예술적으로 고상한 작품을 생산할 것이다'라는 1947년 김일성의 신년사에 비롯된다.

이후 여러 논자들이 고상한 리얼리즘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데 대부분 그 내용으로 인민들에 대한 교화 기능, 긍정적 주인공 및 긍정적 전형론, 적극적 주제의 형상화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혁명적 낭만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논쟁적 논의가 있었다. 이런 논의의 배경은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난다.

북조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민족예술과 민족문학 건설사업은 2년이 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거대한 승리를 가져왔지만 조선 인민들 앞에 놓여 있는 과업이 실로 더 위대하고 곤란한 과업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 인민들이 민주주의적 고상한 사상을 가진 각성 있는 조국 건설자가 되어야 하며 당 정책의 실현으로써만이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해방이후 단기간에 있어서 북조선 인민들의 위대한 승리는 인민정권이 민주주의적 고상한 사상으로써 인민들에게 높은 자각성과 문명성을 주입하면서 인민 속에서 실시한 광범한 교양사업과 문화건설의 결과라 본다.

조선 인민들이 조국과 인민을 진실로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무엇보다도 고상히 여기며 이를 위해 투쟁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용감한 혁신자가 되며 어떠한 난관이든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준비성을 가지며 조국의 원수들에게 대하여 무자비한 자가 되며 선진적 우방과 친선 할 줄 알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공헌할 줄 아는 그러한 고상한 민족적 품성을 가진 '새로운 조선

사람'으로 형성하는데 있어서 예술과 문학은 다른 민주주의적 문화수단들과 더불어 그 역할은 거대하고도 고귀한 것이다. 우리 예술가 문학가들은 조선민족의 전 생활 분야에 침투하여 조선적 큰 예술적 주제를 찾으며 조선사람의 노력과 투쟁과 승리와 영예를 고상한 사실주의 방법으로 그려내야 한다.³²⁾

고상한 리얼리즘론은 주제의 적극성과 긍정적 주인공을 핵심내용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작가들은 새로운 사상의식을 교양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간형을 그려야 했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요구된다. 새로운 인물이란 긍정적인 인물로서 새로운 사회건설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신하면서 전진하는 생기발랄한 조선사람이다. 이런 새로운 사회에서의 생기발랄함은 초기북한문학에서 많은 시인들의 주요 테마가 된다.

오늘 저녁에도 휘파람 불었다고
복순이네 집앞을 지나며
빌써 몇 달째 휘파람 부는데
휘휘..호호..
그리도 그는 몰라준다오

날마다 직장에서 보건만
보고도 다시나 못볼 듯
가슴 속엔 불이 붙소
보고도 또 보고 싶으니
참 이 일을 어찌하오

오늘도 생긋 웃으며
작업량 삼백을 넘쳤다고
글쎄 삼백은 부럽지도 않아
나도 그보다 못하진 않다오

32) 안막, 「민족 문학과 민족예술 건설의 고상한 수준을 위하여」, 『문화전선』, 1947 ; 이선영·김병민·김재용 편, 『현대문학 비평자료집1』, 이북편, 태학사, 1993에 재수록. 이후 위의 책에서 인용하는 해방기 비평 자료들의 각주는 『자료집』1권(이북편 1권), 『자료집』2권(이북편 2권)으로 표시한다.

그래도 그 웃음은 참 부러워
어쩌면 그리도 맑을가

... 중략 ...

몇 달이고 이렇게 부노라면...
그도 정녕 알아 주리라!
이 밤도 이미 늦었는데
나는 학습 재료 뒤적이며
휘휘...호호..
그가 알아줄까?

-조기천『휘파람』³³⁾-

이 시는 한 직장 내에 존재하는 젊은이의 연모의 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모의 정을 앞지르는 것이 바로 ‘작업량, 생산량’이다. ‘작업량’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는 노동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인물이 바로 새 조국 건설에 필요한 고상한 인물이다. ‘고상한 인물’은 새 조국 건설을 위하여 예정 작업량을 넘쳐 실행하며,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고상한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창의와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면서 영웅적인 노력과 투쟁을 아끼지 않는, 헌신하는 새로운 노동자의 전형’을 말한다. 새로운 농민을 그리는데 있어서도 토지를 얻은 농민이 조국에 대한 보답으로 정성을 다해 경작면적을 확장하고 농사기술을 향상시키며 조국의 요청에 부응키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러한 ‘고상한 리얼리즘’의 창작을 위하여 시인들은 현장 속에 직접 뛰어든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 파견된 작가, 시인들의 임무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선전사업과 그를 작품화하는 두 가지인데, 현지로부터 돌아온 많은 작가와 시인들은 ‘건국사상을 제고시키기는커녕 각 공장, 농촌에 있는 노동자, 농민에게 건국사상이란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왔다³⁴⁾고 하였다. 조국으로부터 부과

33) 김철학, 『북한의 대표적 서정시』, 한빛, 1996, pp.12~13.

34) 『로동신문』, 1947. 3. 21. ; 우대식, 『해방기 북한 시문학』, 아주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된 어떠한 과업도 이겨낼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시들을 통해 시인이 그 당시 현실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희망 찬 새나라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예전 시인들은
로동과 땀내를
시가의 죽음이라 하였다
허나 우리는
‘작업량’을 말하련다
‘생산능률’을 외치련다
스스럼한 봄밤
달콤한 사랑의 한숨에서가 아니라
땀 흐르는 직장에서
참된 노래를 듣는다.
창조에 불타는 가슴
못백힌 주먹에서
아름다움을 본다
생활에 웃음이 꽃피기에
웃는 꽃을 반긴다
창조의 투쟁이 끓으며
태양이 빛나기에
달 밝은 밤을 사랑한다
이땅의 예술가들이여!
높은 정열을 노래하려면
힘이 솟구치는 선을 보이려면
억찬 리듬을 찾으려면
여기로 오라-
자유 로력의 현장으로!

-조기전 「생의 노래」에서³⁵⁾ -

2000, p.33 재인용.

35) 이정구, 「시인 조기전의 문학적 활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예술』, 1952.11.; 『자료집』 2권, p.296.

이 작품은 북한 시문학에서 노동의 긍정성을 서사시의 화폭에 담은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력의 현장에 가서 시인은 해방 후 북한의 새 조국 건설에 임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생의 노래』는 서정적 형식의 서사시로 전로공 노동자 영수는 해방 전에 있어서는 ‘햇빛을 못 보는 땅 밑에서 석탄 한 알이라도 적게 파라고 동무들에게 호소했다면 오늘에 있어서는 언제나 작업량을 백 오십 프로 초과달성’하는 그러한 모범 노동자가 된다. 이러한 인물이 바로 새 시대가 요구하는 고상한 인물인 것이다.

고상한 리얼리즘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1947년 북문예총은 반동적 경향에 대한 지적과 당 단체들의 문학적 지도 등을 제시하였다. 고상한 리얼리즘은 생기발랄한 조선민족의 전생활 분야에서 영웅의 노력과 투쟁과 승리를 그려내어 대중으로부터 사회건설의 선진대열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요소, 부정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응향』과 『백두산』사건이다.

북문예총은 『응향』을 비롯한 퇴폐적, 무사상성의 문학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다.³⁶⁾ 『응향』의 시들은 해방 이전의 식민지의 암울한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새 조국 건설에 필요한 생기발랄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가) 매길 도가에서 화장한 상여의
곡성이 흐르고
아 이밤의 제곡이 흐르고
묘소를 지키는 망두석의

36) ... 시집 <응향>을 비롯하여 <예원씨쿨> <문장독본> <관서시인집> 등 부패한 무사상성과 정치적 무관심은 우리 문화전선에 아직도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의 자유’의 신봉자들이 ‘조국과 인민에게 배치되는 예술’ ‘조선예술문학에 접합하지 않은 낡은 예술문학’의 신봉자들이 남아있다. 이는 민주주의적 조선 민족예술과 민족문화와 대립되는 일본 제국주의적 노예사상의 잔재의 산물로써 이러한 조국과 인민에게 해독을 주는 낡은 사상의 신봉자들은 우리 북조선 문화전선의 큰 수치였다. 안막, 「민족문화와 민족예술 건설의 고상한 수준을 위하여」, 『문화전선』, 1947.8.; 『자료집』 1권, p.239.

소리처럼 쓰다 쓴
고독이여
서글픈 행복이여

- 구 상 「밤」에서-

나) -나라를 찾음만 해두 고마운데 땅까지 차지하게 되다니…
-이게 모두 꿈인가, 생시인가.
눈이 뜨이고 귀는 열리어
곰처럼 느린 산사람들은
금시 줄달음쳐
그악한 산비탈을 타고 넘어왔고
약수터가 자리잡은 마을의 글방에
불을 밝혀 밤으로 모이었다.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칠판에 굶다랗게 쓴 토필 글씨를
한 자 한 자 더듬어 읽는 돌쇠는
야학에서 이태나 익혀 유식하다는
머슴살이에 잔뼈가 굵은 로총각이었다.
-올부턴 제 땅 갈아
장가맡친 장만하겠수
돌쇠의 입김은 능청맞고
쭈쭈하고 사나이 공내 잘하는
마을 처녀 중매 서 주리
박침지의 대구는 너털웃음에 흥겨워
이처럼 오가는 잡담 속에서도
기쁨이 샘물마냥 솟는다.

눈오는 봄도 3월달.
약수터를 에워싼 농촌위원회의 밤은
산사람들의 새로운 꿈을 견고
밤을 밝혀 심지를 돋우며
호박꽃처럼 빨강게 익었다.

- 김우철, 「농촌위원회의 밤」³⁷⁾에서-

37) 송기한 편, 『북한문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1, pp.19~21.

가)와 나)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작품이다. 그러나 가)작품은 『응향』에 실린 시들 중 하나인데 이는 퇴폐적 문학의 표본으로 평가되었으며, 나)작품은 평화적 민주 건설기의 생활의 감격을 노래한 성과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다. 이는 가)의 시에서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기쁨, 환희, 생활의 즐거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백만 인민들이 내일의 빛나는 창조적 노력을 위하여 고요히 휴식하는 밤, 구락부에선 청년들의 모임이 벌어지고 야간 성인학교에선 도란도란 글소리가 들려오는 밤, 새 생활의 행복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마다 벅차 오르고 앞날의 무한한 전망이 가슴마다를 울렁거리게 하는 밤, 말할 수 없는 행복스러운 밤’에 이 시인은 다만 ‘상여의 곡성만을 듣고 제국의 흐름만을 보고 그리하여 묘소를 지키는 망두석의 소리처럼 쓰디쓴 고독만을 느낀다’는 함³⁸⁾은 분명 새시대가 요구하는 생기발랄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관념적인 노래들은 시의 난해함으로 인해 문학의 대중화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응향』의 이러한 평가 속에서 더욱 더 부각되어 상반된 평가를 받은 것이 바로 『백두산』이다. 『백두산』은 1946년 말 이후 건국사상총동원 운동에서 제기한 고상한 리얼리즘을 목표로 창작된 작품이다. ‘민족적 품성을 가진 그러한 조선 사람의 형상’으로 조기천은 김일성을 비롯한 항일유격투쟁의 과정을 보여주려고 이 서사시를 썼던 것이다. 그런데 『백두산』은 창작되던 당시에 상반된 평가를 받게 된다. 작품에 행해진 과장과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백두산』은 항일투쟁을 기백 있게 표현하며 새조국 건설의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시대의 고상함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리하여 『백두산』은 당에 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응향』과 『백두산』은 초기 북한문학의 경향을 결정짓는 주요한 사건이 된다. 그런데 전자가 문학의 중앙의 핵심적인 위치가 아닌 반면 후자는 그것이 북한문학의 중심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르다.³⁹⁾ 이렇게 ‘고상

38) 한효, 「새로운 시문학의 발전」, 『문학의 전진』 1950.7. ; 『자료집』 2권, p.79.

한 리얼리즘'의 창작방법은 초기북한문학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였고 이후 주체문예이론으로까지 발전해 간다. 이 논쟁의 결과로 북한문학은 일정한 틀을 가지게 되며 이것과 배치되는 모든 것을 배격하게 된다.

2) 민주기지 건설과 애국주의·국제주의 사상

48년에 들어서면서 국내와 국제 정세는 그 이전과 껍 달라졌다. 국제적인 냉전체제와 맞물려 남북한은 극도의 긴장된 대립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48년 이후 남북은 이 냉전체제에서 비롯된 가치관을 하나하나 내면화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북한의 '민주기지' 건설과 맞물려 진행된다.

새로운 조국의 건설에 필요한 전 국민의 일심단결을 나오는데 있어서 애국주의만큼 강한 이데올로기는 없다. 해방 전의 애국주의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 발현되었다 한다면 해방 후의 북한문학에서 애국주의는 대략 세 가지의 양상을 띤다. 이것 또한 고상한 리얼리즘론에서 요구하는 긍정적 인물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의 사회주의 건설과 함께 하는 결과들이다.

창작대상은 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의 형상, 역사적 시기마다 일어났던 애국선열의 형상, 남한의 빨치산 투쟁 등을 들고 있다.⁴⁰⁾

첫째, 작가들은 애국자의 최고의 전형과 긍정성을 김일성 장군에게 두고 있다. 김일성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런 예술적 과장이 없이도 충분히 무한한 애국심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는 해방의 서사와 더불어 민중의 입을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해방된 조선에서 김일성 장군은 민족적 영웅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형상화는 김일성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한 항일빨치산들이 주된 형상화의 내용으로

39) 김재용, 『북한문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p.107.

40) 엄호석, 「조선문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의 전진』, 1950.8.; 『자료집』 1권, pp.475~490.

부각되기도 한다. 쓰러져간 민족의 운명을 불러일으킨 항일 전사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작품으로는 조기천의 『백두산』, 한명천의 『북간도』, 한설야의 『혈로』, 『개신』 등의 작품이 있다.

둘째, 역사적 시대마다 외적의 침략을 반대하여 일어난 민중들의 투쟁에서 나타난 애국주의나 인민들의 투쟁에 연결된 애국적 영웅들을 다시 재현하여 형상화한다. 김태진의 『이순신장군』, 전무길의 희곡 『을지문덕 장군』이 큰 문학적 성과로 된다.

셋째, 남한의 빨치산 투쟁을 그리고 있다. 이는 48년 들어서 변화된 국내와 국제정세의 반영으로 보인다. 48년이 되면 남과 북은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독립된 정부를 수립한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분단이 고착화되어 가고 이로 인해 각각은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남한에서 벌어지는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활동이 중요하게 부각한다. 남한의 남로당의 붕괴와 남북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은 완전한 이데올로기 분단을 뜻했고 이른바 북한에서는 <민주기지론>을 내세우게 된다. ‘민주기지의 완성태로 북한은 제국주의적 속박 아래 놓여있는 남한이라는 구도의 설정을 통해 남조선 해방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부과하게 된다.’⁴¹⁾

그런데 이 시기 애국주의는 바로 국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냉전 체제 심화되어 갈수록 미국이란 외세에 반대하는 것이 곧 애국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곧바로 부르조아 민족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애국주의야말로 진정 민족의 이익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것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주의,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저버리는 행위로 되어버렸다. 해방 후 북한문단에서는 ‘조소문화협회’를 창립하여 북한민주개혁의 모델이었던 소련과의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학에서의 식민지 해방의 원조자로서 소련에 대한 친선은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경도와 소련의 시인들에 대한 문학적 영향으로 나타난

41) 우대식, 『해방기 북한 시문학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12.

다.⁴²⁾ 특히 조기천의 문학수업과 사회주의 사상은 그의 성장기, 소련 거주 때에 형성된 것으로 그는 소련의 문학을 전파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조기천의 대표적인 작품인 서사시 『백두산』은 소련 문학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며, 『백두산』에서 이야기하는 수령관은 주체문예이론에서 바라보는 수령관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의 수령관으로 봄이 더 타당하겠다.

해방공간에서 조기천은 북한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었다. 이러한 그의 명확한 지도는 다름 아닌 소련의 사회주의 사상에서 체득한 자신감이었고, 그는 이 사상을 실천한 시인인 것이다. 그리하여 『백두산』에 대한 주제적 접근은 수령 형상화의 관점이 아닌 민중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조기천의 생애와 작품 활동 양상

조기천은 해방 이후에야 북한문학사로 편입된 인물이다. 그가 작품 활동을 편 시기는 한국의 현대사가 극단적인 양 모습을 보이는 시기였다. 해방은 역사적 관점에서 양면적 성격을 갖는데 첫째, 해방은 식민지 상황으로부터의 풀려남인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와 기대 지평이 열리는 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그러한 반면에 독립의 지연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이 현실화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쇄사술의 ‘풀림’과 ‘또 다른 묶임’이라는 양면적 상황에 얽혀 있는 것이다.

42) 우리 시문학에 있어서 마야코프스키의 고귀한 전통을 옹가로 받은 시인의 작품이 전체 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애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그것은 곧 우리 시문학의 방향에 뚜렷한 지침을 주고 있는 장편서사시『백두산』을 비롯한 조기천씨의 일련의 작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인들이 진정한 애국자로서 인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선 마야코프스키 시의 고상한 사상성, 인민성, 예술성 및 그 형식을 깊이 연구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민병균, 『쑨메트 시문학을 섭취함에 있어서 경험과 교훈』, 『노동신문』, 1949.; 『자료집1』 p.383~390.

그러나 이런 풀림과 또 다른 묶임의 관계에서 조기전은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해방 이후에 소련에서 들어온 작가라는 데에 있다. 즉 그는 초기북한문학을 주도했던 당시의 여러 문학가들, 임화·한설야·김남천 등과 '해방의 풀림'을 다른 차원에서 느꼈으며 '또 다른 묶임'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그는 이러한 '해방의 양면적 상황'에서 벗어나 혁명적 낙관만을 지닌 인물이다. 물론 이러한 혁명적 낙관, 자신감은 그의 투철한 사회주의 사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북한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항상 한 발 앞서 제시하였고 또한 그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이러한 혁명적 낭만성으로 인해 그는 『백두산』의 주인공들처럼 낙관성, 영웅성을 지닌 인물들을 무수히 창조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는 해방이후 평화적 건설의 시기와 6.25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민족상잔의 시기까지 문학적인 혼란이나 갈등 없이 당의 문학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다시 강조하면 이것은 그의 확고부동한 사회주의 사상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해방공간에서 그의 문학이 그만큼의 과장력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사상으로부터 발현되는 진실성에 대한 신뢰였고 또한 그것은 다름 아닌 소련식 사회주의 사상이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기전은 1913년 11월 6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빈농 출신으로 태어났다. 일제의 억압 하에서는 생활의 궁핍함을 견디기 어려워 고향을 떠나 시베리아로 이주하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성장하였고 고리끼 사범대학에서 노문과를 졸업하였다. 그의 문학수업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세계1,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건설이 현실화되는 단계였다. 그는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눈앞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고 이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19세 되던 해에 「야외훈련」, 「건설의 아침」, 「새해」, 「5·1절」 등의 단시를 발표한다. 고리끼 사범대학을 졸업한 그는 중앙 아세아 크실오르파 조선 사범대학에서 약 2년 간 교수로 있으면서 창작에 정진한다. 해방 직전에는 소련의 관동전투에 함께 참여한다. 1945년 해방이 되어 소비에트 군대와 함께 귀국을 하게 된 그

는 1946년 2월 평양에서 『조선 신문』 편집위원이 된다.⁴³⁾

북한에서는 그의 작품 시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소련에서의 창작시기이다. 이 시기의 그의 작품은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얻은 감격을 노래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후 조기천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사회주의 사상과 소련과의 친선의 주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둘째 시기는 해방과 더불어진 귀국과 48년을 기점으로 한 이전의 작품들이다. 46년 3월에 그는 북한 문단에는 처음으로 「두만강」이라는 단시를 발표한다. 그는 계속하여 이 해 4월에 「을밀대에서 부른 노래」, 「큰거리」, 「수양버들」, 5월에 「5·1절을 맞으라!」, 『우리의 노래』, 6월에 「그네」, 7월에 「흰 바위에 앉아서」, 8월 「보퉁에서」, 「동해바다」, 9월 「분노」, 「휘파람」 등이 있다. 서정서사시로는 46년 북한의 역사적 토지개혁을 노래한 서정서사시 『땅의 노래』, 47년에 『네거리에서』, 48년 소련과의 친선을 노래한 『우리들의 길』이 있다. 한편 47년 11월에는 김일성의 항일 유격 투쟁사를 그린 일대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은 소련 말과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그의 서정시 「휘파람」은 보천보 악단에 의해 곡이 붙여져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서사시 『백두산』은 80년대 전관료들에게 암송의 대상이 되며 문학 교과서로 채택될 정도로 현재까지도 꾸준히 인정을 받고 있

43) 이 당시 평양문단을 형성하던 세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48년 서울문단과 거리를 두고 북쪽에서 활약했던 이기영, 한설야, 이북명, 이찬, 안함광, 남궁만 등의 이른바 재북파와 송영, 박세영, 이동규, 윤기정, 이갑기, 조벽암, 신고송 등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 소속의 제1차 월북파가 있었다. 이들에 대응하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은 '소련파'로 일컬어지고 있는 소련의 한국인²세 조기천, 임하, 전동혁, 정률, 김일 등이 있는데, 이들은 소련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소문화협회'와 <조선신문>(1946년 소련군에 의해 창간) 등을 기반으로 김사량, 전재경, 한태천 등과 손잡고, 뒤에 김조규, 민병균, 김성오, 오장환 등과 합류하게 되었다. 이들 소련파는 서울에서 월북해 온 임화, 김남진, 안희남 등을 지원하여 재북파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였다. 초기북한문학의 이러한 세력갈등은 조기천의 『백두산』을 놓고 벌인 논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기천을 비롯한 소련파에 대해서는 귀국 당시 '우리말로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작가'라는 식의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백두산』의 문학적 성과가 인정을 받음으로써 초기 북한문학가들에게 있어 그는 문학평가의 기준으로 존재하게 된다.

는 작품이다.

이 시기는 '평화적 민주 건설기'로 해방의 감격과 새 나라에 대한 희망이 많이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정서는 서정시로 많이 창작하였다. 그의 서정시는 서정서사시라고도 불리는 만큼 서사성이 강하게 드러나며 길이에 있어서도 연시와 장시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 시기의 단시는 그의 대다수의 작품들과는 다른 해방 직후의 서정을 여유 있게 노래하고 있다. 어떠한 사상성도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 대다수가 남성적이며 역동적 어조로 독자들을 끊임없이 추동해 내는 리듬을 지니고 있다면 이 당시에 창작되었던 단시는 좀 예외의 작품들이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민속적 세계와 자연에 대한 감흥을 그리고 있으며 이념과 사상이 절제되어 있다. 이들 시편은 평화로운 자연부락의 배경으로 자연스러운 성정이 그려져 있다. 활달하고 긍정적이며 청춘의 활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미의식을 구현하고 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봄빛을 줄줄이 드리우며
수양버들이 흐느적흐느적
그러면 내 마음의 천정에서도
무엇인지 봄빛을 흘리며
줄줄이 내리네 드리우네
온 하루 일터에서도
머리속에서 실버들이 흐느적이네
그러면 나도 모를 큰 힘이
가슴속에 푸르게 자라나네
아침마다 의젓이 푸들어지는 실버들
어쩌면 저리도 내마음 같으리!

-「수양버들」전문44)-

44) 『조기천선집』, 연변출판사 1957.12.; 김철학 편, 『북한의 대표적 서정시』, 한빛, 1991. p.20.

수양버들이 봄빛을 줄줄이 드리우며 푸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생활의 의욕을 느낀다는 내용의 시이다. 온 하루 일터에서도 머리 속에서 실버들이 흐노적이 듯이 가슴속에 나도 모를 생활의 힘이 푸르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창문 밖의 풍경인 봄빛 드리운 실버들이 내면화되어 마음속 풍경으로 바뀌고 거기에서 봄빛이 자라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서경을 서정으로 치환시켜 놓고 시적 대상과 시적 주체의 일체화를 꾀하는 형식은 전통적 서정시인 시조의 물아일체와 닮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유로운 풍경의 완상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원초적 역동성과 성장력을 읽어내면서 건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래적 서정시와는 차별성을 보인다. 이 같은 시편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구현한 서정시라는 점에서 전통적 서정시와 차별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인의 마음속에서 자라는 생활의 의욕은 다름 아닌 새나라 건설의 의욕이며 노동의 의욕일 것이다.

버드나무 휘늘어진
5월의 푸른 강변에서
이 마을 처녀들이 그네를 뛰오
츠렁츠렁 지나간 그네줄이
소리없이 반달을 그리면
달새같이 사뿐 내려쳐
맑은 하늘에 날아 오르오

한번 구르면
푸른 물이 반말에서 흘러흘러
두번 구르면
푸른 산이 눈 아래에 오락가락
세번 구르면
흰 구름이 머리맡에서 일어나오
붉어진 뺨 웃음을 날리며
처녀는 그 무엇을 보련듯이
하늘가에 높이 날아 오르오
...이하 생략...

- 「그네」에서⁴⁵⁾ -

남한의 대표적인 시인인 서정주의 「추천사」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봄이라는 계절의 깨끗함과 맑음 등이 비슷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런 관념적인 세계로의 지향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은 물론이다. 만물이 살아나는 5월 버드나무에 길게 매어놓은 그네 위로 끝없이 비상하고픈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흰 구름 너머 멀리 내다보이는 새롭게 건설되어 가는 조국의 산천을 바라보기 위함이다. 더욱 더 높이 날아오르는 마을 처녀들의 '붙어진 뺨 웃음'이 그네의 상승적 이미지와 결합하여 생기발랄함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노동에 대한 긍정은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서정서사시 『보퉁에서』처럼 많은 시들의 기본 정조를 이루고 있다. '해질 무렵/새별 기움을 펼쳤노라/마지막 돌피 줌을 논두렁에 던지고/고개 들어 돌아 보노라면/호함 진 벼 밭이 푸르게 드러누워/가볍게 숨 쉬고-//귀 기울이면/벼 자라는 소리도 들릴 듯/가는 바람 포기포기 건드리며/이리 속삭이며 저리 감돌며/그윽한 이야기 살뜰도 하고//흐뭇한 마음 속에/가없는 초원 같은 넓어지는데/보퉁에 올라서니/우리 마을이 보인다/인민 위원회 반기는듯/구락부도 성인 학교도(...)'라는 내용에서 이제는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바람의 결을 따라 푸르게 움직이는 호함진 벼를 보는 농민의 시선 속에서 해방직후의 평화와 풍요로움이 느껴진다.

또 하나 이 시기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것은 언어의 소박함이다. 어조 자체가 가지는 잔잔함이 언어의 소박함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시어보다는 쉬운 일상언어의 사용이 대중적인 공감을 불러 내오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시기는 48년 9월에서 50년 6월까지의 작품이다. 49년에는 서정 시편 『항쟁의 여수』, 『모스크바』, 50년 6월초에 장편서사시 『생의 노래』가 발표된다. 이 시기의 작품의 특징으로는 경직된 한반도 정세와 일련의 사회개혁의

45) 위의 책, 김철학 편, 1991, p.11.

성공적인 결과를 형상화하였다. 이 시기는 전쟁 직전까지의 작품으로 앞의 서정성과는 다른 걱정적인 어조의 작품들이다. 이러한 시들에서는 당시의 경색되어 가는 한반도의 정세를 잘 읽을 수 있으며 냉전의 심화로 인해 소련과의 국제적인 연대를 강조하게 된다. 평화적 시기의 여유로움과 생동감은 이제 정세의 엄혹함과 무정함으로 인해 억센 리듬으로 변화해 간다.

이 밤도 불빛 하나없이
거리들이 어둠 속에
영원히 잠겨 버린 듯

허나 시가의 가슴을 들으라-
무슨 고동인지 아느냐?
그것은
조선의 자유를 위해 싸우려는
수만의 심장들
'딸라'에 목쳐맨 애국도배를
모조리 부시려는 애국의 억찬 고동!
제주의 밤은 무시무시 깊어가고
가두는 항거의 햇불을 품고
반격의 신호 기다린다

- 『항쟁의 려수』중 「밤의 깊어가도」⁴⁶⁾ -

‘불빛 하나 없이 어둠 속에 깊이 잠긴 항구의 거리에서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수만의 심장과 그리고 그 억센 고동’을 노래하였다. 묵묵히 무기를 받아들고 대열에 들어서는 부두 노동자들, 참을 수 없는 투지로 참가하는 노인 등을 그리고 있다. 이전 시기의 영웅이 자기 생활의 영역에서 의욕에 넘치게 일하는 모습이라면 이 시기의 영웅은 이제 ‘적과 아’를 구분하는 싸움에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제국주의와 우리 민족의 싸움이니 우리 민족 내부의 싸움은 아닌 것이다.

넷째 시기는 전쟁기의 문학이다. 그는 이후 전쟁에 참여하여 『조선은 싸운

46) 한효, 「새로운 시문학의 발전」, 『문학의 전진』, 1950.7. ; 『자료집』 2권, p.63.

다., 『불타는 거리』, 『죽음을 원쑤에게』, 『나의 고지』 등의 장시를 쓴다. 51년 3월에 조선문학예술 총동맹 부위원장으로 피선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그의 문학적 업적을 기려 국기훈장을 수여한다. 51년 7월에 『비행기 사냥꾼』이라는 미완성 유작을 남기고 전사한다. 1950년대의 시는 전장의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전장시이다. '공포와 절망의 전쟁 상황과 거대한 전장의 사신(死神) 앞에서 문학은 어떠한 예술적 표현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인간의 상상력과 언어는 전쟁의 테러리즘 앞에서 참혹하게 파괴되고 만다.'⁴⁷⁾ 그리하여 이 시기에 씌어진 많은 전장시들은 대개 직설적인 상황 묘사와 인위적인 절규, 감탄사의 나열로 채워져 있다. 조기천의 시들도 이러한 직설적인 상황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작품은 여타의 시들에 비해 문학적 여유를 잃지 않고 있다.

바다 멀리 이름모를 섬같이
고지는 서있다
달빛을 안은 밤안개는
감돌아 몇백리
홀려 몇백리

깊은 잠에 빠졌느냐-
전사들은 이 밤 더욱 잠을 몰랐다

전사들이 <나의 고지>를 지킨지도
벌써 사흘 낮 사흘 밤
물어보라! 어떻게 고지를 찾았는가
왜 술밭을 뒤집히었고
왜 바위는 부서졌는가

밤은 전투없이 새이고
먼동에 진달래떨기 마다 탈 무렵

47) 김재홍, 『한국전쟁과 현대시의 응전력』, 평민사, 1978, p.11~12.

산밑에 구름바다를 깨뜨리며
포성이 미칠 듯 높아진다
적은 다시 고지를 삼키려다

포연 속에서
흙 속에서
다박술 몇대마저 넘어지고
참호도 처참히 무너졌을 때
련달아 독살스런 폭음을 쥔대며
검은 쌍발기 덤벼들었다

언기와 불길이 고지를 휩싸고
양키의 검은 그림자들이
거머리같이 산비탈에 붙는데도
고지는 기절한 듯 침묵을 지킨다
웬 일인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 「나의 고지」에서⁴⁸⁾-

전쟁기의 조기천의 작품은 안함광에 의해 ‘경향성과 호소성이 서정성과 모순된다는 기존의 견해를 극복한 표본작’⁴⁹⁾이라고 평가받았다. 전쟁기 시의 호홉은 경향성과 호소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기천의 전쟁시는 전투적 경향성과 호소성이 서정의 풍부성과 형상의 우수성을 돕느냐에 대한 교훈적 실험이 된다고 하였다. 일곱편의 작품 묶어 놓은 『조선은 싸운다』는 대체로 비슷한 구성전개를 보여준다. 전쟁의 참혹상, 그러나 그 속에서 피어나는 건설의 힘, 승리에 대한 다짐, 영웅적인 싸움 등 대체적인 소재는 여타의 전쟁시들과 비슷하다. 그러나 조기천의 시는 서정과 서사가 유기적으로 침투되고 관련되어 하나의 조화된 전체적인 하모니를 이루고 있으며 주관의 강조, 즉 시적 선동이 시적 서정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상호보완 조장하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 이 시기 그의 시에 나타난 주제의 양상으로는 싸움은

48) 조기천, 「나의 고지」, 『조선문학사작품선집2』, 학우서방, 1982, pp.38~42.

49) 안함광, 「싸우는 조선의 시문학이 제기하는 주요한 몇가지 특징」, 『문학예술』, 1951.8. ; 「자료집」 2권, p.119.

전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방은 후방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이러한 전방과 후방의 든든한 지지가 그의 시에서는 잘 나타나 있다.

이상의 조기천의 문학양상을 살펴 본 결과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혁명적 낙관성을 지닌 인물로 강철같은 시인으로 그는 한결같이 새 조국을 건설할 민중의 삶을 강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기천에게 있어서도 『백두산』은 그에게도 문학적 성과의 중심에 서 있는 작품이다. 그의 모든 문학은 해방과 새 조국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 이후 모든 작품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그의 조국을 위해 웅변하는 혁명가다운 모습은 『백두산』의 ‘바위’처럼 느껴진다. 조기천은 ‘백두산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바위의 우직함’처럼 항상 민중 속에 뿌리를 박고 민중의 힘을 믿고 살아 간 그런 시인이었다.

Ⅲ. 『백두산』의 구조 분석

1. 『백두산』의 서사 구조 분석

『백두산』은 머리시, 본시,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시는 7장 46절로 전체는 1633행⁵⁰⁾이나 되는 서사시이다. 먼저 본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장: 눈보라가 몰아치는 백두산 밀영 속에서 항일유격대와 일제 토벌대의 전투가 벌어진다.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김대장은 철호를 조선에 비밀공작원으로 파병한다.
- 2장: 한편 조선의 백두산 화전 마을인 솔개골에는 꽃분이가 살고 있다. 조선으로 파병된 철호는 비밀리에 일년동안 꽃분을 지도한다.
- 3장: 꽃분의 아버지는 일제의 억압에 아내를 잃고 화전농이 되었으며 백두산에서 전해지는 전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꽃분은 대담한 기지로 철호를 위기에서 구하고, 철호의 비밀공작 활동을 도우며 동지적 연정을 느낀다.
- 4장: 백두밀영의 항일 빨찌산들은 고통스러운 유격생활 속에 서도 철의 규율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빨찌산 대장인 김 대장은 엄격함과 인자한 덕성을 지닌 인물로 유격대원들의 두터운 신임 받고 있다.
- 5장: 철호의 험난한 여정은 계속되고 그와 함께 하던 소년 빨찌산 대원인 영남은 임무를 부여받고 압록강을 건너려다 일본 수비대의 총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게 된다. 영남의 죽음이 구체적인 계기로 되어 꽃분은

50) 시집 『백두산』은 북한에서 1959년, 조선작가동맹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과 『로동신문』 1985.5~6 연재된 것, 1989년 실천문학사에서 출판된 것등 세 가지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 세 시집은 특히 소련과의 친선, 김대장에 대한 표현 등 출판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내용이 삭제되었다. 여기서는 두 번째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H시의 길로 떠난다.

6장: 꽃분과 철호가 야습의 선로(先路)를 열어놓고 김대장이 총지휘하는 유격대는 드디어 압록강을 넘어 H시를 습격한다. 승리한 유격대원들은 H시의 민중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해방전의 그날을 기약하며 떠난다.

7장: 다시 압록강을 건너 돌아가는 길에 일본군의 역습으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전투 중 철호와 석준은 장렬하게 전사하고 남은 유격대원은 해방전의 각오로 불타오른다.

이상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백두산』의 전체구조는 아기장수설화의 확대 변용으로 볼 수 있으며 절대적 과거에 해당하는 본시의 이야기구조는 길의 구조로 전개된다. 또한 이러한 서사 구조는 김대장, 철호, 꽃분이라는 인물에 의해 이끌어지며 각각은 당대의 현실과 암유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징적 인물들로 해방공간의 ‘고상한 인물’로 간주된다.

『백두산』의 머리시는 현재, 본시는 과거, 에필로그는 현재를 그리고 있으며 본시는 ‘절대적 과거’에 해당하는 해방서사를 현재형으로 서술하고 있다.⁵¹⁾ 『백두산』은 서사시로서 서사적 구조를 시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사적 내용은 서정적 형식과 유기적으로 침투하여 교호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민요조 율격이 변형된 <세 번 반복법>을 통해 집단의 구술성을 높여내고 있으며 서술과 율격의 구조는 서사시의 이데올로기를 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1) 진인 출현설의 이야기 구조

서사시는 민족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 창작되기 때문에 민족정신이 잘

51) 현재-과거-현재로 이어지는 시제변화는 초기북한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러한 설정은 고난받던 일제시대의 삶을 반추함으로써 일제의 잔악상과 현재의 행복한 삶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드러나는 구비문학에서 소재를 많이 취하게 된다.

설화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민족공동체가 그 발생과 향수와 전승에 관련된 공동심의의 표현이므로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와 사상 그리고 생활상이 가장 잘 드러난 원초적 형태의 문학이다. '원형적 이념의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결속의 원리'로 민족 단위의 설화는 민족적 동질성을 결집하는 데에는 중요한 기여를 한다. 즉 한민족이라는 고유성과 동질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설화를 시에 수용한 까닭은 설화가 갖고 있는 성격으로 전통의 현재화를 통한 민족적, 민중적 감정의 결속을 내어오고자 함에 있다. 결국 현대시가 고대 신화적 세계에 향수를 느끼고 그것을 설화의 형태로 수용하는 것은 신화적 세계의 본래적 자아와 세계에 대한 통시적 동일성에 대한 강한 동경의 표현이면서 이러한 유토피아적 상황을 미래사회로 투사하기 위한 의지의 발현이라 하겠다.⁵²⁾ 설화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민족공동체의 그 발생과 향수와 전승에 관련된 공동심의의 표현이다. 때문에 후대의 사람이 다시 전대의 설화를 들어 올 때에는 전통과의 합일, 그로 인한 동질적 세계의 회복 등 공동체적 생활에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는 아기장수설화의 모티브를 차용하여 시 전체의 구조로 확산되어 가는 서사시적 종합⁵³⁾을 이룬다. 『백두산』의 전체구조는 아기장수를 기다리는 꽃분과 아기장수의 화신인 김대장과 결함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서사구조 속에서는 비극으로 끝나는 아기장수 설화가 빨찌산과 김대장의 승리로 끝맺어 주는 것은 해방공간에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은 누구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신성공간이다. 그런데 이 백두산에서도 빨찌산들의 진지(陣地)인 홍산골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공간이며 이상이 실현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석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민중의 꿈이 실현되게 된다. 석문만 열리면 '해방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석

52) 김경복, 「한국 현대시의 설화 수용의 의미」, 『한국 서술시의 서학』, 태학사, pp.347~354.

53) 서사시적 종합이란 서사시가 신화, 민담, 역사 등 복합체란 의미이며 경험적 서사체와 허구적 서사체의 융합을 의미한다.

문은 바로 글 전체의 주요 사건인 H시 진공전투와 대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H시 진공전투는 해방전의 포문을 열어놓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 골짜기 지나면
또 다른 골짜기-
이갈로 백화로 뒤텀어 앞길 막노니
목도군이 고역에 노그라지듯
골짜기는 으스스히 휘늘어져있어라!
울림으로 뻘뻘하여 몇백리
백설로 아득하여 몇천리-
사나운 짐승도
발길 돌리기 서슴어하고
날새도 고적에 애태우다
날아날아 떠나고야마는
장백의 중중심처 홍산골-

- 제1장 1절 -

백두산 밀림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중중심처에 홍산골이 있다. 사나운 짐승도 발길 돌리기를 꺼려하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고적(孤寂)함에 날아 떠나고 야마는, 울림으로 뻘뻘한 몇 백리, 백설로 아득한 몇 천리의 백두산 속에 홍산골이 있다. 이 홍산골은 바로 태곳적의 고요함을 가진 신화적 공간으로 빨찌산들의 진지이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신성공간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영산이다. 이 백두산의 품속에 깊이 안겨 있는 홍산골에 천명의 장수 있다하니 그가 바로 김대장이다.

조선의 빨찌산 김대장!
이는 장백을 쥐락펴락하는
태산을 주름잡아 한 손에 넣고
동서에 먼찍!
천리허의 대령도 단숨에 넘나드니
축지법을 쓴다고...
북천에 새 별 하나이 솟아
압록의 줄기줄기에 그 유독한 채광을 베풀노니

이 나라에 천명의 장수 났다고

- 제1장 4절 -

김대장은 적을 궁지로 몰아넣고 응징하는 탁월한 전략가이자 동지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관용과 인자함으로 대하는 도덕적 자질과 덕성을 지닌 인물이다. 전략가이자 용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장수의 이미지를 다소 과장된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제시는 김대장이 군사적 영웅일 뿐 아니라 인민을 피안으로 이끌 메시아일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해 준다. 김대장은 캄캄한 밀림의 밤 속에서 민중에게 길을 밝히는 우등불이요 희망의 등대인 것이다.

우등불이 밤을 태운다-
무쇠같이 장백을 내려누르는
캄캄한 밀림의 밤을!
끝없이 몰아 죄여드는 모진 어둠
머리속에도 흑막이 드리운듯-
허나 불길은 쏘고
불꽃은 튀고
쏘아서는 태우고 죽고
죽고는 또 쏘거나
이름모를 결사의 싸움이
이 밀림속에 벌어진듯
빨찌산 우등불-

...

하물며 <토벌>의 천망을 헤치고
사지를 육박으로 지났으니
그것은 승리의 상징
야반의 노도속
반짝이는 구원의 등대!

- 제4장 1절 -

모든 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김대장은 수만의 용사들과 백두밀영을 근거지로 장검을 바위돌에 갈면서 해방전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우등

불처럼 '캄캄한 밀림의 밤을 태우는, 솟아서는 태우고 죽고, 죽고는 또 솟는' 해방전의 투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태우는 우등불은 죽음의 땅, 어둠의 역사를 육박으로 지나는 승리의 상징으로 해방전의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이다.

한편 꽃분은 이러한 전설을 굳게 믿으며 희망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는 기미년 <토벌>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술개골에 와서 화전농이 되었다. 피투성이 <3.1>에 꽃분은 왜놈의 못매에 어머니를 잃고 분노도 희망도 두메의 흙 속에 묻어버린 채 아무런 삶의 간혹을 지니지 못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꽃분이가 일제에게 어머니를 빼앗김을 당했듯이 우리 민중들은 일제에 의해 할아버지들의 땅인 조국에서 내쫓김을 당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 만주든 러시아이든 떠돌아 다녀야 하는 뿌리뽑힌 자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중에게 새로운 희망 새 힘이 생겼다.

그것은
술개골에 이런 전설이 나돌던 때
<백두산속엔 크나큰 굴
해도 달도 있고 별도 반짝이는
넓으나넓은 굴 있는데
그속에선 용사 수만이 장검을 간다고
장검을 바위돌에 갈면서
령 내리기만 기다린다고
때가 되면 령이 내리고
령만 내리면
석문이 켜악 열리고
석문만 열리면
용사들이 벼락같이 쏟아나오고
용사들만 쏟아나오면
이땅에 해방전이 일어난다고
왜놈들을 쳐부수리라->
이때부터 꽃분이도
철호의 지도 받았고
이때부터 백두산을 바라보면
마르고 쪼들린 마음속에

연쇄적인 반복으로 형성되는 독특한 운율감이 전설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꽃분의 간절함에 주술적 기능을 더해주고 있다. 꽃분은 백두산 속의 크나 큰 굴에서 용사들이 벼락같이 쏟아나오기를 기다리며 철호의 지도를 받고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꽃분의 바람이 현실화가 되는 계기가 바로 H시 진공전투이다. 백두산의 용사들이 쏟아 나와 '오월의 대하인양 격랑의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 낸 것이 H시 진공전투이다. 이 전투는 해방전의 포문을 열어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다.

<우리 비록
작은 거리를 쳤지만
그 거리에 일으킨 불길은
죽어가는 민족의 가슴에
투쟁의 불꽃을 떨어뜨렸다!
우리 비록
오늘은 한 거리를 치고 가지만
우리 기어코 오리라!
조선아! 조선아!>

...

그들을 전송하는 이고장 사람들-
기막힌 이 거리에
한줄기 생의 빛 가져왔으니
<잘 가라 영웅들이여
어느 때나 승리하리라!>

...

하지만 뺨찌산들의 부르짖음-
<잘 있으라 동포여
싸우라 동포여!
해방전에 독립연에 다시 만나자!>

‘해도 달도 있고 별도 반짝이는 넓은 굴’의 석문만 열리면 해방전이 일어난다. 그러나 비록 ‘오늘은 작은 거리를 치고 가지만 죽어가는 민족의 가슴에 투쟁의 불꽃을 떨구었고’ 이 투쟁의 불꽃은 빨찌산의 우등불처럼 어둠을 이기고 언젠가는 활활 타오를 것임을 민중에게 약속하고 있다. 이 전설이 실현되었듯이 남아있는 전설인 해방전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백두산』에서 차용한 아기장수설화는 낡은 세상을 뒤집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영웅을 기다리는 민중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설화이다. 여기에서는 식민지 조국에서 일제에 억눌린 부조리한 현실을 갈아엎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세상을 바라는 꽃분이의 마음이 설화의 해석공동체인 우리 민족과 서사적 동질성을 이룬다. 아기장수설화는 출생-죽음-재생-죽음의 구조를 지닌다. 아기장수설화는 현상적인 죽음을 완전한 끝의 차단된 세계로 보지 않으며 죽음 이상의 또는 죽음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에로 열려 있는 의식 구조를 지닌다. 그렇게 될 때 죽음처럼 재생의 설정도 자연스러워진다. 이처럼 작품 내에서 죽음-재생의 단계가 자연스럽게 설정된 것처럼 실제 전승의 과정에서도 아기장수는 인물을 바꾸면서 재현되고 있다.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된 전승을 통해 확인되는 아기장수의 재현 역시 죽음을 죽음으로 수궁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의지의 표출이다. 통시적으로 재현되는 사실 자체가 아기장수의 재생에 대한 민중적 소망의 투영이다. 따라서 전설의 구조도 각 편에서는 죽음으로 귀결되어도 제2, 제3의 다른 장수로 다시 출현하는 거시적으로 보면 열려진 구조이다.

아기장수 설화는 여타의 영웅이야기와는 달리 실패하는 영웅이야기이다. 그러나 『백두산』에서는 이 비극의 영웅이야기가 승리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된다. 이는 이야기의 종결, 완결을 의미하게 되며 서사시적 세계의 완결성과도 맥을 같이 하게 된다. 즉 아기장수설화의 완결은 민족의 ‘절대적 과거’와 같은 성질을 지니게 되고, 이는 해방의 서사와 동례에 놓이게 된다.

아기장수전설은 전부 비극으로 끝나는데도 많은 인구에 회자되는 전설이라

는 점에서 부단한 희망추구를 찾아볼 수 있다. 아기장수는 몇 백 번이나 죽어서 수용자의 꿈은 꺾였어도 아기장수전설을 이야기함으로써 희망을 그 비극의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요, 이리하여 설화 속의 영웅인 ‘우투리’와 ‘둥구리’가 민간에 전승되고 김덕령, 전봉준, 신돌석 같은 역사상의 인물이 아기장수의 화신으로 표출된다.⁵⁴⁾ 끊임없이 인구에 회자되어 가는 장수의 모습이 해방공간에서는 새 시대에 향한 기대와 함께 등장한 감격의 주인공을 김일성과 같은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다. 북한에서 그에게 주는 장군이라는 칭호는 그의 군사적 위업을 가리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해방은 제국주의에 대한 세계 혁명의 결과로 흔히 설명되었거니와 무장투쟁을 이끈 그는 민족의 해방자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혁명의 지도자가 된다. 장군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로 묶는 전통적 의미의 지도자인 장수에 가까운 것이다.⁵⁵⁾ 토지개혁을 ‘성공리’에 완수한 이후 그의 존재는 더욱더 부각이 되고 가는 곳마다 인민들의 모이고 그로 인해 일체화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인민의 영웅’이다.

2) 시간과 공간의 유기적 구조

여기에서는 이야기의 구조를 시간의 양상으로 살펴보겠다. 이야기는 시간적 인 계기성을 본질로 한다. 『백두산』에서 시간과 공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처럼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것을 시공간소-크로노토프⁵⁶⁾라고 한다.

이야기는 흔히 길로 비유가 된다. 길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다. 행위의 연속으로서의 이야기는 일정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54)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pp.7~10.

55) 신형기,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pp.18~31.

56) 마호친,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외 역, 창작과 비평사, 1988, p.450.

크로노토프는 이야기의 의미가 생성되는 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띠게 된다. 또한 크로노토프는 시간의 범주이며 인물유형과도 관련을 맺는다.

추구인 셈이다. 유동적 모티브가 작용하는 공간과 억압모티브가 작용하는 시간이 길⁵⁷⁾에서 함께 얹여 짜여지는 것이다. 또한 길의 크로노토프와 만남의 크로노토프는 중요한 구성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것은 플롯의 출발점을 제공하기도 하며 때로는 절정, 대단원을 제공한다. 만남이란 서사시의 플롯을 축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만남의 모티브가 길의 크로노토프 및 길에서의 만남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크로노토프에서는 시간적 지표와 공간적 지표 사이의 통일성이 대단히 정확하고 명백하게 드러난다.

『백두산』은 길이라는 공간이 시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길은 철호의 여로가 되며 넓게는 해방전으로 가는 길이 된다. 철호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스토리의 구조가 여로와 멈춤의 길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길을 가는 과정 속에는 멈춤이 반드시 있고 이 멈춤 속에서 철학과 명상, 사색이 담기게 되며 이야기는 서사성이 약화되고 공간성을 갖게 된다. 『백두산』에서 길이 멈추는 곳은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나뉜다. 김대장이 머물러 있는 곳과 꽃분이 있는 공간이다. 서사성이 약화된 곳에서 이 두 인물이 서사의 대상이 되고 인물을 통하여 『백두산』의 주제사상이 드러난다.

김대장과 꽃분은 민중영웅주의의 표현이며 이들은 각각 백두밀영을 근거지로 하나의 공간에 머물러 있는 존재이다. 『백두산』에서 김대장은 민족의 영산(靈山)으로서 백두산의 상징적 의미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즉 김대장은 민족의 절대정신을 상징하는 서사시적 인물이다.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영웅성이 길을 따라 꽃분에게로 이행되는 것이 이 시의 이야기 구조이다.

57) 길에서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시공간적 지점에서 교차한다. 사회적 공간적 기리에 의해 통상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우연히 만날 수 있으며 온갖 대비가 노출되고 가장 다양한 운명들이 서로 충돌되고 얹힐 수 있다. 길의 크로노토프는 새로운 출발점인 동시에 사건의 결말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공간과 융합되어 길 안에서 흐르는 것과 같다. 이 점이 행로로서의 길의 형상이 의미심장하게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인생행로, 새로운 행로의 출발, 역사의 행로 등으로 사용되는 근거이다. 길이 비유로 변형되는 방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원의 것이지만 그것의 기본축은 시간의 흐름이다.

즉 이 둘의 결합은 최상의 이데올로기 단계를 상징하며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인물이 철호이다.

철호의 여정은 항일 빨찌산의 진지(홍산골) - 솔개골 - 압록강- -H시의 과정을 거친다. 철호의 여로가 멈춰지는 삽화에는 꽃분과 김대장이 있고 인물을 통해 서사시 『백두산』의 의미가 생기게 된다. 철호와 꽃분의 인물관계를 살펴봤을 때 철호의 여로는 꽃분의 내면적인 의식의 각성과 나란히 나아가게 된다.

눈보라! 눈보라!
네야 산 넘고 골 지나 또 지나
압록강까지 이르리라!
너를 동무삼아
철호 저 산 넘으리!
압록을 건너 조상의 땅 밟으리!
눈보라! 눈보라!
듣느냐?
너는야 철호를 도와주거라-
너도 장백의 눈보라 아니냐!
철호는 벌리도 간단다
국경선 H시도 그의 길에 놓였고
성진 함흥도 가야만 되고
너 장백의 눈보라야!
불어 또 불어 철호를 감추라-
왜놈을 기절케 하라

- 제2장 7절 -

철호는 김대장과 꽃분이를 연결시켜 주는 인물로 홍산골 전투 이후 조선으로 파병된다. 이 곳에서 철호는 기나긴 여정은 1여 년의 시간동안 계속된다. ‘눈보라 속에 먼 먼길 떠나더니 진달래아지에 봄 맺히는 때’ 그는 솔개골에 온다. 소리개가 많다하여 불리던 솔개골도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져 외가마귀 앉아 울고만 있고, 화전농이 되어 버린 마을 사람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솔개골에는 꽃분이가 있다. 솔개골에 있는 꽃분은 자연발생적인 계급의식

을 가지고는 있지만 변혁적인 인물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꽃분의
각성이 철호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나는 박철호라 부르우
얼마나 괴로우시우?>
길 막던 사나이의 첫말
술밭은 어둑해져도
꽃분의 뺨엔 붉은 노을-
<아이고! 철호동무!>
가늘게 속삭일뿐
처녀는 면목도 모르며
한해나 그의 지도 받았다-
배라도 찍어보내고
피복도 홍산으로 보내고
중년은 되리라 한 그-
그는 새파란 청년
강직하고도 인자스런 모습
호협한 정열에 끓는 눈-

-제2장 7절-

한 해가 넘도록 꽃분은 얼굴도 모르고 철호의 지도를 받아왔다. 희망 없이
살아오던 꽃분은 철호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있는 인물로 변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적인 만남이 있는 후부터 시간이 더해짐과 함께 철호에
대한 꽃분의 동지적 연정은 깊어지고 그만큼 의식적으로도 성장해 가게 된다.

<간 밤에 영남이 죽었수...>
<영남이? 아이구 기차기두!...>
처녀의 심장옆에서
무거운 아픔이
꿈틀 돌아눕는다
또 돌아눕는다...
한 시후에 철호 떠나고
꽃분에도 길 떠났다
H시로 간다고

전에없이 꽃판리 간다고
진달래꽃 한입 이고
몇몇해 정성껏 자래우던
샘터 진달래도 모조리 뜯어
한떨기도 남기지 않고...

- 제5장 6절 -

꽃분에게 영남의 죽음은 무거운 아픔이 되고 빨찌산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구체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성껏 키웠던 진달래꽃-해방전의 의지를 한 떨기도 남김없이 그대로 가지고 길을 떠난다.

이렇게 성장 발전하는 꽃분의 길의 끝은 H시로 연결되어 있다. 꽃분은 철호와 더불어 H시 야습의 주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꽃분으로 뺀어있던 길과 김대장을 중심으로 뺀어있던 두 갈래의 길의 구조가 H시로 모이게 된다. 그런데 이야기 구조에서 이 세 인물은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서는 서사시적 인물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⁵⁸⁾ 즉 꽃분(민중)을 근거하지 않는 김대장은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철호를 빼놓고서는 꽃분이 성장할 수 없다. 그리하여 H시에 모인 인물들은 모두 서사시적 인물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다. 김대장과 꽃분의 공간적인 범주는 백두산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꽃분의 의식적 각성의 시간은 백두산의 길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백두산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사건이 최절정에 달하는 순간이며 이는 백두산의 절대성이 한반도 전역으로 뻗어 나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경험적 서사체와 허구적 서사체의 교직

한 작품이 진실처럼 보인다는 것은 두 가지로 비추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58) 철호가 어떠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항상 그의 배후에는 김대장의 형상을 이끌어오며 (레하민 H시 전투, 압록강 도강시) 그가 일정한 행동을 완수할 때마다 항상 꽃분이라는 인물이 그를 따르게 된다. 이정구, 『시인 초기전론』, 문예출판사, 1953(영인), p.67.

는 장르의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즉 한 작품이 진실처럼 보인다고 판단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문학 장르의 규칙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다른 진실성은 진술과 그것의 지시 대상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진술과 독자들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⁵⁹⁾ 따라서 서사시에서의 리얼리티의 확보는 서사시 장르의 서사시적 세계관에 비춰서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서사시는 경험적 서사체(역사)와 허구적 서사체(허구)의 교호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시의 리얼리티는 역사적 층위에서 이야기 구조에 의해 보장된다.⁶⁰⁾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건이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면 상상에 의한 허구적 사건은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이 현실성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다.⁶¹⁾ 즉 서사시는 당대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과 암유적으로 대응하여 지향하는 집단적 의식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당대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전망을 제시해야만 서사시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백두산』에서는 본시의 과거 이야기가 현재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면서 역사와 허구의 구조가 상호 보강되어 나타난다. 즉 『백두산』은 초기북한문단에서 이루어졌던 <인민성>⁶²⁾의 문제로 당대와 암유적인 대응관계를 맺고 있다. 이 작품은 인민성의 역사적 의의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인민성의 문제는 해방공

59) 토도로프, 『구조시학』, 광정수 역, 문학과 지성사, 1998, p.45.

60) 서사시 장르의 특성으로는 역사성을 찾을 수 있다. 서사시의 역사는 당대현실과 암유관계를 가진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며 오늘의 의미에 투영되지 않는 과거는 죽은 과거라고 할 때 이 과거의 역사는 역사가 지닌 현재적 의미를 심화시켜 당대 현실과의 연속적 의의를 강조한다.’(이종윤, 『분단시대의 서사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30) 그러나 서사시의 과거는 다른 문학장르와 달리 한 민족의 접근 불가능한 절대적인 과거가 된다.

61) 김형철, 『한국 현대 서사시의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1994.

62) 북한문학은 인민성, 노동계급성, 당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당문학이다. 이러한 원칙이 제기된 것은 56년 제3차 당대회에 이르러서이지만 해방공간의 인민성의 문제가 『백두산』을 통해서 드러난다. 위의 세 가지 원칙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해방공간의 인민성의 문제를 노골남은 ‘이중적 인민성’이라고 하였다.

간의 북한문단에서 이루어졌던 민족문학론의 중요한 쟁점으로 파악된다. 한마디로 『백두산』은 ‘인민 중심으로 민족적인 것’을 펼쳐 보였다.

『백두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백두산이 상징하는 ‘민족의 전통성’과 역사 주체로서 ‘인민’의 위치를 명백히 하고 있다. 작품 가운데 인민의 전형인 꽃분에서 찾고, 영웅적 인물로서 등장하는 김대장 역시 아기장수 설화와 겹치면서 인민의 영웅으로 그리고 있다. 말하자면 계급성과 당파성의 모든 것의 출발점에 <인민성>의 문제가 놓이게 된다.⁶³⁾ 다시 말해 『백두산』은 모든 영웅의상이 민중 영웅상으로 제시되어 나타남으로써 민중의 의미를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백두산』의 역사와 허구의 결합으로 이루어 내는 당대적 의미는 바로 <인민성>의 강조에 있다 하겠다.

해방공간에 좌파진영에서 이루어졌던 민족문학론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 논쟁의 쟁점은 계급문학과 민족문학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잡아내느냐의 문제였다. 문학가동맹의 대표적인 논객인 임화의 민족문학론은 계급간의 투쟁을 원치 않는 인민민주주의로 개혁한다는 뜻에서 ‘인민성’은 계급적인 것보다 민족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범민족적 통일전선의 특징을 강하게 띤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북문예총의 대표적인 논객인 안함광의 민족문학론은 과거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을 단순히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념을 현단계적 특질 위에서 이어받는 것이라고 하여 프로문학과 민족문학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었다. ‘현단계적 특질이란 것은 노동자 계급을 위시한 민중이 반세, 반봉건의 과업 아래서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현단계의 특질을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이념 즉 노동자 계급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파악하는 점’⁶⁴⁾에서 이 안함광의 민족문학론은 당대 민족적 과제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어떤 이념에 입각하여 파악하는가의 문제를 망각한 입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63) 노귀남, 「인민성의 문제로 읽은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 조기천과 백남룡을 중심으로」, 『경희어문학』, 제17집, 경희대국문학과, 1997, 2.

64) 안함광, 「민족문학론」, 『민족과 문학』, 문화전선사, 1947.; 『자료집』 1권, p.9.

『백두산』에서 항일 빨찌산에 대한 서사는 민족적 것인 동시에 민중적인 것의 결합인데 여기에서는 민족의 개념을 포괄한 민중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백두산』은 역사적 사실의 층위에 H시로 표상되는 보천보전투와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며 상상적 층위에 꽃분, 빨치산들, 민중들의 삶이 있게 된다. 이 시의 서사구조는 상상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가치체계에 근거한 역사적 진실성을 보강하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전반적으로 상상적 층위를 표면에 내세우고 사실적 층위의 이야기가 내면에 숨어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구조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상상적 이야기 층위의 강조는 상상적 층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민성의 강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민성은 『백두산』의 전체적인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

가마 속 물은 끓다가도 없어진다-
원천이 없거니-
허나 내물은 대하를 이룬다.
동무들!
우리는 대하가 되려나 바다가 되려나
우리의 근간도 민중 속에,
우리의 힘도 민중 속에 있다
민중과 혈연을 한가지한
빨찌산임을 우리는 잊었는가
우리 이것을 잊고
어찌 대사를 이루랴!
민중과의 분리-
이것은 우리의 멸망,
이것을 일제들이 꾀한다

-4장 5절-

민중과 분리된 싸움은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 성공을 이룰 수 없다. 민중과의 분리, 이것은 곧 우리의 멸망이다. 우리의 근간도 민중 속에 있고 우리의 힘도 민중 속에 있게 된다. 식민지 현실에서 ‘우리’는 결국 민족공동체라 할 수 있다. 즉 『백두산』에서 가장 중심이 서 있는 것이 민중성이며 이를 중심으

로 민족을 바라보고 있다.

결국 도도하게 흐르는 민족의 역사적 흐름은 각성된 민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식은 다음의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백두산! 백두산!
너, 세기의 증견자야!
칭기스한의 들뜨우는 말발굽도
풍신수길의 파문은 칼도
너의 가슴에 잊히지 않는 상처를 남겼고
오백년 왕업도
사신의 두어깨에 치욕의 짐이 되어
너의 등골에 모멸의 발자욱 치며
해마다 압록을 건너야만 될 때도
인민만은 자유의 해불을 쳐들고
홍경래의 창기를 뒤따랐고
동학의 싸움을 펼쳤다
허다가 반만년 다듬기운 이 땅이
왜적의 독아⁶⁵⁾에 울크러진채
백두야, 너도 가슴막히여
숙연히 머리숙이었지!
그러나 인민만은 봉화를 일으켜
칼을 들고 의병이 일어났고
피를 들고 <3.1>이 일어났다
파업의 굴뚝에 분노 서리우고
<소작>을 안고 주람이 통곡칠 때
또 송화강 물결까지도
왜적의 그림자에 거칠어지고
만리장성도 늙들의 멸시에 맞아
조약돌로 덩굴 때
이 나라의 빨찌산들이 일어나
반항의 기치를 피로 물들이거니
아아, 백두야, 네 얼마나
동해의 날뛰는 파도인양
격분에 가슴을 떨면서

65) 독아: 무기와 총칭

바다속 섬나라 저 원썬들-
하늘아래 한가지 못살 저 원썬들
피어린 눈으로 노렸느냐!

- 제3장 3절-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역사이며 민족정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은 한반도 민중의 삶이 처한 환난과 고통을 굽어보는 살아 있는 존재이며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또 미래의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 백두산이 증견자가 되어 우리의 역사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는 주체가 바로 민중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수많은 외침과 조선왕조의 부패한 양반들이 치욕의 짐이 되어 해마다 압록강을 건너야 할 때, 민중만은 자유의 횃불을 들었고 홍경래의 난, 동학혁명, 3.1민중항쟁 등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해 민중들이 일어났다. 이제 또 다시 왜적의 독아에 송화강의 물결까지도 거칠어질 때 일어난 민중은 다름 아닌 빨찌산들인 것이다.

눌리우고 짓밟힌 이 거리에
반항의 함성 뒤울리거니
암담한 이 거리에 투쟁의 불길 세차거니
흰옷 입은 무리 쏟아나온다-
머리벗은 로인도 발벗은 녀인도
별기숭이애들도
절망이 잦아든 이 거리에
별친지의 화원인양 화해에
불꽃이 나뭇가고
재생의 열망을 휘쭉어올리며
화광이 춤추는데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
높이 올라서 칼 짚고 웨치는 김대장-
<동포들이여!
저 불길을 보느냐?
조선을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은 살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썩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 제6장 6절 -

이렇게 우리 민중의 저력을 확인하게 해 주는 사건 가운데 서 있는 빨찌산 활동 중 의미가 깊은 것으로『백두산』은 역사적 사실인 보천보전투를 소재로 취하였다. 그러나 작품 전반에 깔려 있는 민중성의 의미를 따졌을 때 『백두산』의 H시 전투가 보천보전투 하나만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H시 전투는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수많은 민중항쟁의 대유로 보아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은 1930년대에 이르러 이전의 소극적 형태의 투쟁에서 새로운 적극적 형태의 투쟁으로 변화하게 된다. 특히 1935년에 전 만주에 항일연합군의 통일조직을 가지게 되고 백두밀영과 송화강 유역에는 장기적인 항일 무장 근거지가 되었다. 빨찌산 활동 가운데 1936년~1937년 사이는 만주에 있어서 유격 전투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으며 보천보 전투의 의의는 나라 밖에서만 진행되었던 항일운동이 나라 안까지 미치어 항일의 물꼬를 터왔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건이다. 보천보 전투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조선의 혼이 살아있음을, 조선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백두산』에서는 빨찌산들의 국내 진공작전을 시도하는 압록강 도강의 묘사가 아주 치밀하고 상징적으로 부각되어 나타난다. 압록강은 유이민들의 아픔과 조국 해방의 열망을 동시에 표현하는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상징되고 있다.

밤은 밑바닥도 없이 깊어가는데
높은 산 깊은 골 지나
빨찌산들이 압록에 이르다
뜻깊고 한많은 이 물결을
빨찌산들이 또다시 건느려다

그러나 이길은
가슴터지는 추방의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 복수의 길-
허기에 압록도 기쁘게 중얼거리며
때목을 몰아 강가에 붙이고는
밤을 헤치며 눕실눕실
대해로 흘러흐르누나

...

빨치산들이 압록강을 건너왔다-
왜적이 짓밟은 이땅에
살아서 살곳 없고
죽어서 누울곳 없고
모두다 잃고 빼앗겼으니
가슴꺼지는 한숨으로
이 강 건너 이방의 거친 땅에
거지의 서러운 첫걸음 옮기던 그날-
그날부터 몇몇해 지났느냐?
강우에 밤안개 젖은 안개 떠돈다-

- 제7장 1절, 2절 -

드디어 빨치산들이 압록강을 건넌다. ‘왜적이 짓밟은 이 땅에서 모두 잃고 빼앗겨 이 강을 건너 이방의 거친 땅에 거지의 서러운 첫 걸음을 옮기던 그 날, 그날로부터 몇몇 해 지났는가? 이 강우에 떠도는 안개는 이 강을 넘은 백성들의 한숨이며, 솟아서 부서지고 부서지는 물줄기는 이 강 너른 백성의 눈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해방전의 불길을 뿌리려 이 나라의 빨치산들이 그대를 건너왔으니 압록강은 격랑을 치어들고 격전을 부르짖으라’고 말한다. 빨치산들의 기개가 압록강의 격랑으로 대치되어 비장함마저 느끼게 한다.

이상으로 봤을 때 『백두산』의 역사와 허구의 결합구조는 민중의 힘을 역사의 격랑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백두산』의 ‘인민성’은 결국 해방공간의 정치사상적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인물의 형상화

<환경>이란 시공간 개념이지만 배경이라는 용어와 구별된다. 이야기 시공간은 인물과 환경이 자리 잡는 물리적 요소인 동시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코드화된 정신적 요소이다. 환경은 인물에게 운동성을 주는 객체적 대상이면서 그와 함께 인물이 그 속에 얽혀 살아가야 하는 일종의 그물망이기도 하다. 인물의 환경 속에 뒤얽혀 살아가면서 또한 그것에 대립해 반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환경에 즉해 있는 인물>과 <환경에 대해 있는 인물>로 나눌 수 있는데 환경에 대해 있는 인물이 등장하면 플롯은 인물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인물의 성격이 뚜렷이 드러난다.

『백두산』에서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다른 서사요소들은 배경화되어 있다. 이러한 인물의 형상화 요구는 해방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상한 인물’과 맥을 같이 한다.

『백두산』의 영웅들은 또한 다만 이상적인 인간들일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사회 생활 속에 실제로 존재해 있었던 영웅들이며 오늘에 와서는 점점 더 많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 점점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적인 동시에 낭만적인 영웅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과거 우리 문학이 가졌던 모든 긍정적 인물들을 가장 완전한 형태로 발전시켰으며 앞으로 우리 문학이 그려야 할 전형적 형상의 모범을 제시한 작품이다.⁶⁶⁾

그러나 『백두산』의 세 인물 유형 중 서사시적 영웅의 면모를 견지하고 있는 인물은 김대장과 꽃분이라 할 수 있다.

1) ‘민중의 영웅’ 그리기

『백두산』의 주인공 중 김대장은 즉자적인 인물로 서사시적 면모를 갖춘 인물이다. 그는 고대 서사시의 영웅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서사시적 인물은

66) 이정구, 『시인 초기천론』, 1953(영인), p.87.

개인의 내면이 집단적 인간관계 속에 통합됨으로써 사회와 대립하여 늘 동요하는 내면을 지닌 미결정적 인물과 달리 흔들리지 않는 완결된 내면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처럼 서사시적으로 완결된 인물은 지적·감성적·도덕적으로 내면적인 풍부함을 갖추므로써 단조로운 평면성을 넘어선다. 그러면서 서사시적 인물의 완결성은 고립된 폐쇄성이 아니라 집단과 통합된 공동체적 의식의 고양을 의미한다.

눈 우에 뚜렷한 이 발자국
 눈 여겨 살피라-
 그 속엔 절망의 흔적 없으리,
 지난 밤 흰두루마기 사람들
 설피 신고 이곳 꿰여 북으로 갔으니
 사람은 몇백이나 되어도
 발자국은 하나만 남겨두고-
 그런데 오늘은 이 발자국 허물이며
 수십의 일제의 무리
 허리까지 눈무지에 빠지며
 ‘토벌’의 큰 불 밀림에 지르른다.

- 제2장 2절 -

홍산골 전투는 보천보전투의 승리를 예감하도록 만드는 사건이다. 이 홍산골 전투를 통하여 김대장의 뛰어난 전략가로서의 능력과 빨치산의 기개를 엿볼 수 있다. ‘산비탈 바위 위에 올라 빨치산 대원들에게 내리는 작렬하는 육박의 구령소리’는 바위 위에 나선 ‘백두산 호랑이의 거센 노호소리’를 연상케 한다.

실제로 허리까지 빠지는 눈무지를 수 백 명이 하나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장적 표현은 사실감을 떨어뜨리는 장애 요소가 아니라 김대장을 비롯한 백두밀영의 빨치산들의 일심단결의 자세와 김대장의 전략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또 한편으로는 덕성과 관용을 지닌 인물이다.

그렇게 기다리던 식량부대
아침에야 돌아왔다-

...

목재소 일본소로는
살도 푸둥 굴레도 호함졌다
<소는 어디서 가져왔소?>
대장이 묻는 말
<삼밭골 목재소 어구에서...>
대장은 굴레를 보았다-
동전을 단 굴레
수놓은 굴레...아낙네의 숨씨
독특한 코뚜레- 민족의 이색-
어김없는 일본소는 아니다
<동무들!
우리 빨찌산들이
어느때부터 마직이 되었는가?
어느때부터
평민의 재산을 로략했는가?>

...

<늬가 소를 죽였는가?>
<너는 명령을 거역했다!>
<너는 왜놈을 도와준다>

...

<그렇다면...>
찰칵- 총재우는 소리
<자, 나는 죽어 마땅하니...>
석준이 총박죽을 내민다

...

<총살!>
폭풍우전 짧은 순간...
침묵... 침묵... 침묵...
<임자를 찾아 소값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대장이 돌아선다

- 제4장 3,4절 -

김대장은 뛰어난 지략가일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혁명적인 지도자로서의 언제나 낙관과 관용이 넘치는 끓는 전우애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빨찌산 대원인 석준이가 그렇게 마음 졸여하며 기다리던 식량을 구해서 돌아왔다. 목재소 일본소 두 마리를 끌고 온 것이다. 그러나 대장은 굴레를 보았다. 그 굴레는 다름 아닌 조선 아낙의 숨쉴, 민족의 이색, 민중의 것을 함부로 했다하여 석준이 죽음으로 사죄하려 한다. 이러한 석준의 실수를 가르침으로 설복 교화시키는 그의 너그러움은 바로 지도자의 모습 그대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도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중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고상한 인물'로 된다.

이처럼 그는 민중의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게 결점이나 실수란 있을 수 없다. 완전무결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패배란 있을 수 없으며 민족적 승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인물이다. 그 인물의 성격으로서 그는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의 성격은 원래적 의미의 서사시적 인물이 가지는 특성이다. 그러나 김대장의 완전무결함은 서사시의 장르적 특성으로서 개인적 특성보다는 집단적인 모범으로서의 전형성에 기인한 것이다.

2) '민중적 영웅' 그리기

다른 주인공인 꽃분은 내면의 성장과정을 보이는 긍정적 주인공으로 활동하면서 최후의 순간에 서사시적 인물의 고양된 내면을 드러낸다.⁶⁷⁾ 변화 발전하는 인물이라는 의미에서 꽃분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성은 더 중요시된다. 꽃분의 시련과 성장은 해방공간의 민중사상의 부각에 의한 혁명적 토대가 형성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살아서 변화 발전하는 인물로서 진정한 역사의 주역이

67)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긍정적 주인공은 이처럼 집단적 인물들과 굳건히 합체되는 순간 번번히 서사시적 인물의 형상으로 고양된다. 긍정적 주인공이 부정적 환경과 맞서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집단에 완전히 통합되는 순간 그는 고양된 굳건한 내면성을 지닌 서사시적 인물이 된다.

될 인물이 꽃분인 것이다. 그의 삶은 일제시대의 억압과 수난의 역사를 겪어 온 우리 민족의 삶의 전형으로 꽃분은 기본적인 계급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꽃같다고 꽃
분같이 희다고 분-
꽃분의 어린 때는
혜산 어느 마을에서 지냈다
솔개골에 온 지도 십여 년-
학교라곤 구경 못한 꽃분이
허나 기나긴 겨울밤은 한글의 밤-
아버지의 가르침 받아
손싸래에 때문에 모지라진
몇 해전 '신녀성'도 쉽게 보았다
임당수 깊은 물에
심창이를 버린 그 배사공들이
한없이 야속하다 눈물도 지었고
드덜기 캐면서도
신관사또 변학도의 목 베이노라
중동을 찍어 동맹이도 찼다
때로는 아버지의 구슬픈 이야기
그것은 소녀의 가슴 속에
세월은 흘러도 더 피여오르는
불멸의 불덩이!

- 제3장 4절-

꽃분은 희로애락과 분노를 아는 살아있는 인물이다. 여기에서의 꽃분이 처음 가지는 계급의식은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그러나 기미년 '토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화전골로 들어오면서 백두산의 전설을 믿으며 <꿈속에라도 잠꼬대 피하려고/ 허 물어뜯어 병어리 되고/대사의 비밀을 죽음으로 감추며/고문대에 매인 채 소리없이 죽어간/이름모를 그 청년/.../아! 나도 그래리라>는

의지를 키우며 살아가는 인물이었다. 이런 꽃분은 철호의 지도를 받으면서 더욱 더 의식적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 이러한 의식적 각성 과정 중 빨치산 대원인 영남의 죽음으로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고상한 인물’로 한층 발전하게 된다. 철호와 더불어 비밀 선포문 등사를 하던 밤, 그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대담한 기지로 왜경으로부터 철호의 몸을 보호하게 된다. 이리하여 그는 철호와 더불어 H시 진공전투의 선봉에 서서 싸운다. 이 H시(혜산시)는 다른 아닌 꽃분의 고향이며 어머니의 품속이다. 식민지 시대의 많은 뿌리뽑힌 자들에게 해방의 염원은 무엇보다도 귀향의 염원으로 나타난다. 그들에게 고향은 그들이 염원하는 낯익은 공동체가 되며 그대로 하나의 낙원이며 이상이 된다. H시 전투는 꽃분에게 어머니 찾기이며 나라찾기이며 귀향의 의미를 지니는 본능적인 부추김이 되는 것이다.

『백두산』의 모든 이야기의 사건구조와 인물구조가 H시 진공전투로 모아지며 이 전투를 준비하는 꽃분과 철호는 이 시의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최후에 살아 남는 인물이 꽃분이다.

산마루 바위에 선 빨치산들
 대장이 서고
 순선어도 서고
 꽃분어도 서고
 전사들도 모두 서고...

...

빨치산들아!
 우리 선렬의 령을 위하여
 사격->
 <조선아! 조선아
 너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너의 민주 행복을 위하여
 사격 사격->
 레총소리 산하를 떨친다!
 삼천리를 떨친다!

- 제7장 6절 -

H시 야습 이후 꽃분은 이제 한층 더 발전된 ‘고상한 인물’이 되어 새 조국 건설의 진정한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김대장과 빨치산과 꽃분이 함께 서서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한다는 것으로 전체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백두산』의 김대장과 꽃분이는 민중영웅주의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김대장은 집단 모범으로서의 전형성에 기인하여 서사시적 완결함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민중이 바라는 영웅이 된다. 이에 비해 꽃분은 시련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 발전하는 민중의 전형이 된다.

이처럼 『백두산』에서 등장하는 조국을 위한 불요불굴의 정신을 진 인물들은 ‘새 나라 만들기의 고상한 인물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어떠한 곤란에도 실패할 줄 모르며 혁명적 낙관을 지닌 긍정적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간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인물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는, 생활과 환경을 자각적으로 변혁해 나가는 긍정적 영웅들이다.

3. 서술과 율격구조

1) ‘절대적 과거’의 현재화

서사시의 세계관은 완전히 접근 불가능한 완결된 세계이며 절대적 과거라는 시간성과 관련되어 있다.

서사시의 세계는 민족의 영웅적 과거이다. 그것은 민족의 역사에 있어 ‘시조’와 ‘절정기’의 세계이며 선조들과 가문의 설립자의 세계이며 제일인자들과 ‘최상의 것들’의 세계이다. 서사시는 결코 현재에 관한, 당대에 관한 시가 아니다. 서사시는 접근 불가능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다. 재현된 영웅들의 세계는 서사시적 거리에 의해 단절된, 완전히 상이하며 접근 불가능한 시간적, 가치적 차원에 기초하고 있다. 서사시적 절대과거는 오직 과거에서만 일어나는 최고도로 좋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다음 시대들과 절연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서사시적 과거는 선대적이며 완전하다. 그것은 하나의 원처럼 닫혀 있으며 그 안의 모든 것은 완성되었고 이미 종결된 상태이다.⁶⁸⁾

한 민족의 접근 불가능한 절대적인 과거가 서사시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사시가 소재로 취하는 절대적 시간은 당대 현실과 압유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현실과의 관계에 의하여 『백두산』에서의 말하기 방식은 과거형의 말하기가 아닌 현재형의 말하기 방식을 택했다. 서사의 본질이 과거형이며 서정의 본질이 시간의 무화(無化)라고 했을 때 과거 이야기의 현재적 진술은 어떤 의도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항일무장투쟁을 돌이키는 것은 새 조국 건설의 열의를 더욱 고양시킨다. 숭한 영웅들이 헌신의 본보기를 보인 격정의 시기로 그려지고 이 격정의 시기는 '위대한 과거'가 된 것이다. 전선을 빛낸 놀라운 위훈들은 살아 있는 전통으로서 앞날을 밝히게 된다. 이러한 위대한 시기를 그리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이 바로 서사시였다. 서사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의 이야기로 관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두산』에서 절대적 과거는 역사 속에 파묻히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언제든지 재현 가능한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접근 불가능한 절대적 이야기를 취급하는 데 있어 화자의 거리가 가짐은 당연하다.

『백두산』의 경우에는 화자의 거리가 머리시, 맺음시와 본시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난다. 머리시와 맺음시에서 시인이 직접 화자로 등장한다. 백두산 상상몽에서 시인은 해방의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역사적 개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역사서술의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이곳에서 시인은 해방의 기쁨을 백두산과 담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항일의 의로운 전사들이
사선에 올랐던 이 나라에
재생의 백광 가져왔으니
해방사의 혁혁한 대로

68) 마호진,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역, 창작과 비평사, 1988, pp.30~33.

두만강 물결을 넘어왔고
백두의 주름주름 바로 꿰어
민주조선에 줄곧 뻗치노니
또 장백의 곡곡에 얼룩진
지난날의 싸움의 자취 력력하노니
내 오늘 맘놓고 여기에 올라
삼천리를 손금같이 굽어보노라!

이 나라 빨찌산들이 이곳에 올라
천심을 떠받으며
의분에 불질러
해방전의 마지막봉화 일으켰느냐?

...

조선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을 때
몇만의 지사 맘길 더듬어
백두의 밑림 찾았더냐?
가랑앞에 쪽잡도 그리웠고
사지를 문턱인듯 넘나든이 그 뉘냐?
해방된 이 땅에서
뉘가 인민을 위해 싸우느냐?
뉘가 민전의 첫머리에 섰느냐?

이땅에 해방의 기호치던
장백에 솟은 이름모를 그 바위
또 내 가슴속에도 뿌리박고 솟았거니
지난날의 싸움의 자취 더듬으며
가난한 시상을 모으고 엮어
백두의 주인공 삼가 그리며
삼천만이여, 그대에게
높아도 낮아도 제 목소리로
가슴 헤쳐 마음대로 말하련다!

- 머리시 -

『백두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총체적인 감흥이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은 서로 낯선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세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응이다. 화자의 시선에 닿는 모든 것은 풀 포기 하나,

바위 하나라도 백두산에 있는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감응은 물론 정신의 순결함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거니와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시인의 순결한 열정과 민족의 영산(靈山)인 백두산의 대화이다. 민족해방투쟁의 장엄한 모습과 새 조국 건설의 감격을 그리려는 시인의 순결한 열정은 백두산의 영성(靈聖)을 일깨우고 백두산은 이에 호응하여 앞으로 이룩될 새 나라의 모습을 예언하는 것이다.’⁶⁹⁾ 시인의 정서가 강렬함은 그 대화의 대상이 백두산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머리시에서는 천지와 백두산 호랑이로 상징되는 이 땅의 민족의 순결함과 민족혼과 민족정기의 살아 있음을 표출하고자 하는 시인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본시는 근본적으로는 과거인 이야기를 현재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본시의 이야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화자의 존재는 전지적 위치로 바뀌게 된다. 본시는 하나의 절대적 과거이며 완결된 세계의 이야기이다. 이 세계와 시적 주체인 시인 사이에는 <거리>가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거리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점이 전지적 시점서술이 된다. 이는 이야기 외부에서 사건들을 머리 속으로 그려보는 그 총괄적인 시점행위로 인해 전지적 특권을 갖게 된다. 이야기 외부의 초월적 위치는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지적 시점>을 제공한다.

『백두산』의 본시는 과거의 이야기가 시공간의 관점을 벗어나 현재의 자신의 관점을 지남으로써 <이야기의 과거>를 현재화하고 있다. 즉 과거의 이야기들을 현재적 시간에서 화자가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야기 시공간이 화자-독자의 시공간이 동질성을 얻었음을 의미하며 이야기 세계가 관념성에서 벗어나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진술은 이야기 시간과 담론 시간이 일치되는 듯한 효과로 직접성(현재성)의 환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항일무장투쟁의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현재화할 수 있는 과거임을 암시한다. 과거와 현재의 동일시가 바로 『백두산』의 서사시가 가지

69) 목원대 국어교육학과, 『북한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2, p.95.

는 이데올로기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항일의 의로운 빨찌산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맺음시에서는 일인칭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서술을 하며 화자는 독자가 있는 공간으로 돌아온다. 그리하여 백두산의 목소리를 빌어 시인의 주제의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천산성악아, 백두산아!
오늘은 이땅에 날이 밝아
오늘은 너의 천지에 채운이 서리우고
오늘은 너의 머리우에
창창한 대공이 열렸거니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
네 누구를 맞이했느냐?

...

세기의 백발을 휘날리며
백두산은 대답한다.
<오늘은
무럭무럭 굴뚝에서 솟는
창조의 타는 로력을 본다
풍작에 우거진 자유의 전야를 본다
력사의 대로에 거세게 올라선
비약의 나래를 펼친
민주의 북조선을 본다
오늘은
독립의 터를 닦는 인민을 본다
민전의 선두에 선 김대장을 본다
친선의 정성이 어엿한
쏘베트의 손길을 본다
오늘은
푸른 리념을 함뱍 걸어안고
빛나는 민주 미래를 만들며
자라자라나는 인민의 바위-
모란봉을 본다!
또 저 삼각산밑에서
반동의 무리 뒤어여 옥썰거리여도
테로의 미친 눈이 백주에 희번덕여도

민전의 싱싱한 웨침에
남산 송백도 더 푸르러 빛나는 것을
내 오늘 력력히 본다!>

...

- 냇음시 -

시인의 육성이 전해지는 백두산의 이러한 울림은 해방의 감격으로 시작하여
민중들이 건설해야 할 나라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심원을 그리며 세계로 무한
히 뻗어 나간다.

2) 해방의 서사와 공민적 서정의 결합

서사시는 시로 씌어져 있는 서사적 묘사방식의 작품이다. 시로 씌어 있기
때문에 산문으로 묘사된 것보다 더 압축되고 집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정적
요소와 음영이 침투되어 상호 교차한다. 그리하여 서사시는 작품의 줄거리, 사
건 등의 단순성과 단일성, 갈등 구성의 단층성과 그 복선의 비복잡성, 묘사에
서의 비약과 함축 등 일련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단일성과 집중성을 높여
내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포괄하는 정서적 구조의 총체가 서사시의 서정성
이다.

서사시에서 서정성의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시적 화자의 서정적 토로와 독
백 등이 있다. 이러한 주정토로는 자연, 풍경, 환경 등에 대한 서정적 침투, 행
동의 시적 분위기의 조성, 미적인 색조의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에는 전
체적인 서사구조 속에 시간의 무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대상이 진술의 초
점이 된다.

산천의 밤-
마을집 이구석 저구석에서
모지라빠진 뒤통박같은 두메의 삶이
누덕밑에서 어지러운 꿈자리 펴는
밤에도 4월의 한밤!

물레방아소리도 그쳤다-
 마지막 물레방아소리...
 굼주리는 마을을 조상하듯
 밤새 개울물줄기 외로이 부여잡고
 묵놓아 흐느껴울던 그 소리...
 그래도 두메의 외딴 오막살이 한 채엔

...

-제3장 6절-

『백두산』에서의 서정성의 강화는 여러 가지 자연 상관물을 통해서 드러나며 자연에 대한 묘사가 탁월하다. 이러한 경향은 조기천의 많은 시들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는 바이다. 술개골의 지난한 삶을 물레방아 소리로 청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개울물 소리는 굼주리는 마을을 조상(弔喪)하는 듯한 곡성처럼 들린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조국을 빼앗긴 민족의 상실감을 부모를 잃은 상가의 곡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을 묘사하는 서정성은 결국 전체 글의 주제와 부합되어 서사의 강화로 이어진다.

한편으로 서사시에서 이루어지는 서정은 서정시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서사시에서의 서정성, 그것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포괄하는 정서적 구조의 총체이다. 시는 객관적인 것이 주관화된 시인의 감정(내부체험)으로 표현한다. 서사시는 외부세계를 시인의 주정토로써 통해 밝히며 이는 서사구조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 공통된 정서적 체험을 하는 것이 서사시의 목적이 된다. 헤겔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서정의 주관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시의 형식을 가지면서)에서의 서사지향성의 가능성을 알게 해 준다.

서정시도 또한 그 내용과 형식 속에 서사시적 사건을 채택할 수 있으며 결국 서사시에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서정시 경우에는 상황이나 사건의 전말이라든가 혹은 국가운명의 전환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보고된다는 점에서 한 편으로는 형식이 서술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경향이 서정적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실제 사건에 대해 비주관적 묘사 전달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시인의 느낌과 접근방식이며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기쁨, 비판, 용기, 좌절 등이며 이러한 작품이 노리는 효과도 완전히 서정시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인이 의도하는 바는 서술된 사건에 의해 스스로 느꼈던 것과 동일한 정조를 듣는 사람에게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시인은 우수와 비애, 유쾌함, 열렬한 애국심 등을 이에 상응하는 사건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중심이 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반영되는 마음 상태이다. 가장 생생하게 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시를 듣는 사람에게도 시인이 느꼈던 것과 동일한 감정을 가장 잘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징만을 원칙적으로 강조하고 묘사한다. 그리하여 내용은 서사적이지만 서정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⁷⁰⁾

즉 서사시의 서정은 역사적 사건, 공민적인 것에 대해 느꼈던 시인의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서정을 공민적 서정⁷¹⁾이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가 느꼈던 동일한 정조를 듣는 사람에게 전달시켜 준다. 즉 『백두산』의 서정은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무들>
대장의 말소리 강철을 울린다
<우리 비록
작은 거리를 쳤지만
그 거리에 일으킨 불길은
죽어가는 민족의 가슴에
투쟁의 불꽃을 떨어뜨렸다!
우리 비록
오늘은 한 거리를 차고 가지만
우리 기어코 오리다!

70) 헤겔, 『헤겔미학Ⅲ』, 두행숙 역, 나남출판사, 1995.

71) 모든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시는 세계관의 산물이며 개성의 산물이다. 시는 내부체험의 표현으로 여기에서 개성의 문제는 중요하다. 시인의 개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신적 풍모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야 한다. 이 속에서 자기를 남과 비교해 하는 개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성적인 것, 그것은 그 어떤 세상에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어 그것으로 남과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것으로 되고 있는 가운데서 남과 자기를 구별하는 그 특성인 것이다. 시인의 이러한 개성은 세계관의 표현이기도 하다.

조선아! 조선아!
인민이 살아 있거든
우리의 힘은 크다!
우리 애국의 기개를 살려
해방투쟁의 불길을 높이리라
빨치산들아!

- 제7장 6절 -

H시 진공 작전의 승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기쁨, 감격은 우리 민족 모두의 것이다. 모두가 느끼는 이 순간은 너와 나의 분리가 없는 상태의 것이다. 또한 보천보 전투의 승리를 민족의 해방이라는 승리와 동례에 놓음으로서 공동체 일원들 모두에게 동일한 승리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하여 이는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다.

한편, 시에 있어서 서정의 문제는 정서를 주도하는 시적 주체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시적 주체는 작품 속에 구현된 실제 시인의 형상으로 정서나 서술을 주도해 가는 존재이다. 머리시와 맺음시에서는 시적 주체가 시속에 적극적으로 등장하여 정서를 주도하거나 앞장 서 있다. 현실적인 과제를 화자가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새 조국 건설이란 급박한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열망을 밖으로 표출하는 데에, 화자 내지 시적 주체가 대상 뒤에 숨어서 여러 가지 시적 장치를 통해 거리를 유지하기보다는 작품의 전면에서 적극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적 주체의 직접적인 감정표출과 정서노출이 시적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편협한 주관성 내지 사사로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시적 주체가 당대의 현실에 대해 보여주는 현실인식 내지 응전 의식의 치열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주관적 정서가 항상 공동체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공동의 정서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백두산』의 서정성은 그 사건이 개인의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것, 공민적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시인 자신의 내적 체험, 주관성이 이야기로서 독자

에게 전달되면서 동일한 정조를 환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3) 민요조 율격과 구술성

서사시의 언어는 시어의 기능과 서사 언어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서사의 언어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려면 시는 미터, 리듬, 두운법, 행연의 구분 등으로 비논리적인 형태를 만든다. 서사가 진행적이려면 시는 정지적이다. 서사는 설명, 정의, 결론을 포함한 언어다.

그래서 서사시에서는 시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상징과 애매성은 서사의 본질을 흐려놓기 때문에 자제되어 나타난다. 다만 시어의 기능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운율감’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시는 서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친운율적이기 어려운 외형적 열등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유시보다도 운율장치에 대한 배려가 더욱 다양하고 섬세하다.

『백두산』의 언어적 특징으로는 첫째 격음과 경음의 사용이 많다는 것이다. 서정시는 자아와 세계가 분리되지도 않으며 대립하지도 않는 세계로 서정시의 감동은 조화의 감정이며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러나 이와 대립하여 파토스적인 감동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 갈등을 전제로 하며 이것을 타개하려 한다. 걱정과 적대감정으로서 파토스는 또한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갈망이다. 그래서 파토스적인 것은 무엇을 욕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 욕구자체는 실제로 있음과 있어야 합의 분리에 대한 반응이다. 있어야 할 당위적 세계가 아직 지금 여기에 없으므로 걱정, 방황하는 마음이 되고 세계에 대한 적대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⁷²⁾ 이러한 파토스적인 감정은 곧 바로 시인의 언어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시의 충돌, 투쟁의 음상징을 갖는 파열음, 경음, 격음이 3음보와 병존하여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형성되는 어조는 강하고 역동적이며 남성적인 어조를 이룬다.

72)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9, p.48~51.

석과 솟아 구름을 삼킨다는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
 이 땅을 파물아치던 살풍에
 찼찼 충암이 창공을 치뚫으고
 천심을 떠받으며

특히 머리시와 맺음시에서는 경음과 격음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경음과 격음을 사용하게 되면 강한 박자를 형성되고 이는 어조를 아주 격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은 있어야 할 세계를 제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음운의 특징은 3음보의 율격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백두산』에서의 대체적인 율격은 3음보를 이루고 있다. 시형이 길어지면서 시 전체를 이끌어가기에는 안정적인 질서를 가진 4음보는 지루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하여 동적 변화감을 느끼게 하는 3음보의 율격이 적합하게 받아들여진다. 『백두산』은 불려 읽혀지는 구송에 적합한 서사시이다. 눈으로 보는 시가 아니라 듣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 항일의 ∨ 의로운 ∨ 전사들이
 사산에 ∨ 올랐던 ∨ 이 나라에
 재생의 ∨ 백광 ∨ 가져왔으니
 해방사의 ∨ 헹헹한 ∨ 대로
 두만강 ∨ 물결을 ∨ 넘어왔고

이 3음보의 리듬감은 결국 서사시의 구술성과 연결된다. 서사시의 가장 큰 특징인 공동체성과 집단성은 시의 구술성에서 얻어진다. 마찬가지로 서사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도 구술성에서 찾을 수 있다. 『백두산』은 낭독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어 나타난다. 낭독의 묘미를 살려 주는 것이 바로 3음보의 율격에 있다. 서사의 긴 진행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3음보의 율동적이

고 역동적인 율격이 더욱 적합한 것이 된다.⁷³⁾

셋째, 큰 리듬의 단위로 각 절의 단위에서 행해지는 <세 번 반복법>⁷⁴⁾이 있다. 서사시는 장대함과 웅장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시의 리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사시의 리듬이 행, 연의 내부의 섬세함만을 가지게 된다면 큰 형식의 리듬을 놓치게 되고 서사시의 웅장함을 살필 수는 없다.

『백두산』에서는 <세 번 반복법>을 통해 민요조의 운율로 시의 구술성을 높여 주고 있다. 또한 각종 보조적 운율수법으로 병렬식 각운, 교차식 각운 등을 사용하고 있다. 즉 세 번 반복법이란 우리 의 고전시기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동일한 시어를 <AAOA>의 유형으로 반복한 운율수법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민요작품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세 번 반복법은 강음과 약음이나 장음과 단음 또는 고음과 저음 등 서로 상반되는 성음의 병렬식 대응반복으로서 문체론적으로는 대구적인 수사학적 작용을 하며 작시법적으로는 성음상 전후 음절군의 대칭, 대응을 조성시켜 그 내용을 더욱 살려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운율 수법이다. 이 배열형식에서 <O>의 위치에 놓이는 시어는 올림소리, 폐쇄음의 경음이나 평음 등 음향상 자극성이 있는 어음을 씬으로서 율조

73) 3음보는 서민계층의 세계관과 감성의 표현인데 반하여 4음보는 사대부의 귀족계층의 세계관과 감성의 표현이다. 3음보는 서민계층의 리듬, 자연적 리듬, 서정적 리듬, 경쾌한 맛, 가창에 적합, 동적 변화감과 사회변동기 대변에 나타나는 리듬이다. 이에 비해 4음보는 사대부계층의 리듬, 인위적 리듬, 교술적 리듬, 장중한 맛, 음송에 적합, 안정과 질서 대변하는 리듬이다. 3음보격은 서민시대의 등장, 피압박 시대의 정한, 과도기적 사회 변동기의 불안감등을 3음보 우세 현상과 관련지을 수 있다. 김준오, 위의 책, p.145; 조동일, 『한국 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2.

74) ‘고저, 장단, 강약 등이 모두 내재한 조선어로 된 시가는 이런 성격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내외 율절군들을 균형적으로 대응시킴으로써 시문학의 음악적 룰조를 살린다.’ 이러한 운율적 미감의 기본골격을 잘 형성시켜서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 세 번 반복법이다. 현종호, 「조선시가의 운율적 특성과 세 번 반복법」, 『사실주의 서정시 강좌』, pp.477~486.

이러한 세 번 반복법은 남한에서도 율격의 기본 율격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대행, 「민요의 율격체계」, 1978.

형성에서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

서사시에서는 정서 내용을 일정한 범위에서 구획한 단위로서 절이 있다. 절은 시에서 상대적으로 완결된 사상감정의 단락으로써 시의 감정발전의 일정한 단계를 보여주는데 <세 번 반복법>은 절의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 1 안개 내린다-
- 2 산촌에 저녁안개 내린다
- 3 어둠을 거느족이 이끌고
- 4 길잡이도 없이 한자욱 두자욱
- 5 화전골 오솔길을 더듬어
- 6 저녁안개 두메로 내린다
- 7 안개 내린다-
- 8 환양의 때인양 꿈틀거리며
- 9 사발봉 츠렁바위에 쓰다듬다가
- 10 남몰래 슬며시
- 11 숲밭에 숨어들더니
- 12 그래도 마을에 내려서
- 13 밤이라도 편히나 쉬려는 듯
- 14 안개 내린다-
- 15 백두산 안개 내린다-

2장의 1절로 철호의 등장을 우선 안개라는 상관물로 포석을 깔아두고 있다. 여기서는 ‘안개 내린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은 똑같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두 행의 ‘안개 내린다. 안개 내린다. 백두산 안개 내린다’ 식으로 약간의 변형미를 주고 있다. 절 전체로 봤을 때는 <AAOA>구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나누면 또 다시 <aaoa>구조로 나눌 수 있다. 7행의 ‘안개 내린다’를 기점으로 1·2·6행의 ‘안개 내린다.

산촌에 안개 내린다. 저녁 안개 두메로 내린다'로 구성이 되는 전반부와 7·14·15행의 '안개 내린다. 안개 내린다. 백두산 안개 내린다'로 구성되는 후반부이다. 그러나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대로 일치되지 않는다. 전반부는 <aaoa>이며 후반부는 <aoaa>로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7행은 앞부분과 결합하여서는 또 하나의 단락을 만들어 주고 있다. 1~7행의 경우는 4행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칭이 하강과 상승의 효과를 만들고 있어 안개의 하강과 상승의 이미지를 자아낸다.

이렇게 율격을 혼합시키면서 마치 안개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듯하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아주 천천히 어둠이 마을을 삼키듯이 안개가 마을에 조용히 내려와 쓰다듬는다. 이렇게 안개가 내려오는 것은 철호의 지도가 꽃분에게로 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백두산』에서 사용된 세 번 반복법은 또 하나의 특징을 지닌다. 이것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눈보라! 눈보라!/안개 내린다-><아아, 칙뿌리- 칙뿌리->처럼 각 절의 처음 시작이 주로 2음보로 되거나 3음보로 시작할 때에는 첫 음보를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3음보로 시작하지 않고 2음보로 시작한다는 것은 3음보의 흐름 속에서 낫설음을 통해 시상을 집중시키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감탄사의 시작으로 시상을 응결시키거나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장시가 시상이 길어지면서 산문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세 번 반복법이라는 운율수법으로 시적 긴장감을 주고 있다.

IV. 『백두산』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분석

1. 서사시의 이데올로기

모든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으로 유토피아와 밀접히 관련되어 나타난다. 인간은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의식만으로 삶을 유지해 나가지 못한다. 인간은 일상 속에서 꿈을 가지게 마련이며 그 꿈은 유토피아나 종교적인 내세사상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등으로 나타난다. 문학 속에 나타나는 종교사상이나 유토피아 사상 등이 이러한 양태를 띠며, 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성된 미래에의 꿈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현상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일체의 행동을 유도하는 사상의 복합체인 지배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혁명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이끄는 대립적 사상의 복합체-이데올로기⁷⁵⁾를 유토피아로 볼 수 있다.

서사장르는 작가의 이상을 직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방향성을 반영하는 가운데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유토피아를 주제로 형상화

75) <이데올로기>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확립한다는 것은 그 개념의 폭넓음으로 인하여 엄격한 규정이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저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 용어와 변형들을 역사적 발전의 문제로 살펴 볼 때 그 내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항목을 포함한다. i) 특정한 계급 또는 집단에 특징적인 믿음의 체계 ii) 진정한 또한 과학적인 지식에 대비될 수 있는 환상적인 믿음들- 허위 사상이나 허위의식-의 체계 iii) 의미와 사상을 산출하는 일반적인 과정. 레이몬드 윌리엄즈, 『이념과 문학』, 이원환 역, 문학과 지성사, 1982, p.70.

이데올로기란 용어가 이들 세 층위의 의미를 지닌다면 문학에서는 지극히 구체적인 언어의 구조물로서 의미의 축적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작품이 작가의 문제의식에 의해 소재가 선택되고 소재는 제재로, 제재 속에서는 주제가 발견·축적되어 독자의 의식 속에 의미가 축적되는 iii)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이 i)에서 특징적인 믿음의 체계라는 점에서 유토피아의식과 상통하게 된다. 즉 유토피아가 한 사회의 의미맥락에 자리잡을 때 그것은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경우 서사시는 소설과는 다른 차이를 보인다. 소설 발생의 사회, 문화적 배경은 소설로 하여금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나서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⁷⁶⁾ 그러나 서사시는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취급한다. 이는 서사시적 세계관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창조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는 점, 이데올로기적 창조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과정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⁷⁷⁾과 연관지어 본다면 공적 장르로서의 서사시가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

한편 유토피아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지닌다. 유토피아는 미래지향적이며 역사적이고 실천적이다. 유토피아 의식은 인류 역사의 진보와 함께 나아간다. 또한 그 사유나 비전이 역사와 결합할 때 유토피아는 힘과 폭력과 전체주의를 동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의 포기’와 더불어 인간은 역사를 형성하려는 그의 의지를 잃고, 역사를 이해하려는 그의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만하임은 말한다. 이러한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유토피아의 절정의 하나로 표상되고 있다. 과학이 종교의 역할⁷⁸⁾을 하게 되고, 노동자들이나 생산업자들이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며, 정치적인 폭력은 사회적인 재생 이전의 카오스(원시공동체 사회의 자아와 세계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던 사회)로의 복귀의 제의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⁷⁹⁾ 프레드릭

76) 우한용, 『한국 현대 소설 구조연구』, 삼지원, 1997, pp.510~514.

77) 바흐친, 『문예학의 형식적 방식』, 이득재 역, 문예출판사, 1993, p.16.

78) 이상적인 사회의 모든 표상, 이블테면 낙원, 황금시대, 천년왕국 등을 통털어 유토피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상적인 사회의 표상에 있어서 낙원이나 황금시대는 순전히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접근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유토피아와는 달리 세속적인 시간이나 공간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 유토피아는 과학이나 기술, 사회관계의 합리화를 통해서 미래에 이 세상에서 성취될 수 있지만, 낙원이나 황금시대는 미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함께 자리하는 태고의 역설적인 과거, 즉 <영원한 현재> 속에 놓여 있다. 유토피아는 지상에서 인간이 창조하는 낙원이다.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7, p.14.

79) 임철규, 앞의 책, p.55.

제임슨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존재론적으로 보다 근원적인 것은 이 억압받는 자의 시선은 잠재적으로 가장 유토피아적’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유토피아적 사유는 사회적, 경제적 변혁의 필요성을 제일 먼저 지각하는 <타자>의 전형, 노동자계급의 의식 속에 가장 공고히 자리잡혀져 있다. 이러한 <타자>의 전형은 시대에 따라 농민, 노동자, 민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처럼 유토피아적 사유는 더 나은 세계로의 지향을 의미하게 되며 역사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2. 미래지향의 유토피아 비전

『백두산』에서 이데올로기의 산출 과정은 유토피아적 비전의 제시로 나타난다.

유토피아적 비전이 집단적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말한다고 했을 때 조기천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는 미래지향의 새로운 세계건설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유토피아는 이상사회를 표방하는 까닭에 당위의 세계이며, 현실에 대한 제도적인 비판과 개혁을 위한 제안을 하므로 또한 규범의 세계이다.⁸⁰⁾ 곧 유토피아는 도피가 아니며 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비전을 희망으로 제시하는 사상적 체계이다. 당위적, 규범적 세계로 유토피아는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나라는 일어서리라-
화려한 광장들을 펼쳐들고
민족의 높은 삶을 웨치며
기적소리 은은한 굴뚝이며
흰갈매기 훨훨 돛대치는 바다를 펼쳐들고
꽃뿌리는 분이며

80) 임철규, 앞의 책, p.13.

이삭패는 금빛가을을
 땅을 겨웁거라 가족 받들고
 아름다운 노래며
 즐거운 웃음을 넘칠듯 싣고
 처녀들의 붉은 뺨이며
 어린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득 안고
 이 나라는 일어서리라!

- 「죽음을 원쑤에게」 중 4절 -

전쟁기에 씌어진 이 시에서도 시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씨 뿌리는
 봄의 생명력과 이삭 패는 가을의 풍요로움은 바로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목가적인 세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여성적 이미지는 모든 시대의 유토피아니
 즘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이러한 이미지의 제시는
 강한 선동력을 지니고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세상이라는 혁명적 낙
 관주의가 강한 어조로 나타나면서 독자들에게 희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천의 유토피아니즘은 역사적이며 실천적인 하나의 이데올로기이
 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
 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 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세계는 무한히 광대하지만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아늑
 한데,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 타오르는 불빛은 별들이 발하고 있는 빛과 동질적으
 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와 자아, 천공(天空)의 별빛과 내면의 불
 꽃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지만 서로에 대해 낮설어지는 법이 없다.⁸¹⁾

다소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루카치는 자아와 세계의 분리가 없는 시대의
 문학을 서사시의 시대라고 하였다. 모든 사람은 천공의 별빛과 동일한 영혼의
 불꽃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시대의 모든 이들은 철학자이며 각각의 철학이
 지니는 유토피아적 목표의 소유자로 행복한 시대의 지도를 그리는 일 외에는
 참된 철학이란 없었다. 이들은 별빛을 보고 갈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81)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철당, 1985, P.25

총체성이 깃든 시대에 살고 있었다. 이러한 서사시가 가지는 원환적 완결성의 세계에 인간 역사는 변증법적 변화를 거치면서 나아간다. 루카치는 이러한 세계의 '가능성'을 현실공간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찾는다. 그에게 사회주의는 원환적 완결성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지도가 된다.

이러한 루카치의 사고는 조기천의 경우와 닮아 있다. 조기천에게는 그를 서사시의 시대로 접근 가능케 한 지도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가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체득한 사회주의 사상이다. 그는 역사는 반드시 변증법적 진보를 내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런 확신은 해방공간의 북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지도가 되어 준 것이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태어난 고향을 일러 고향이라 불렀다.
밀어 기쁘고 사랑하고
떠나서도 애타게 그리워
그러나 고향 아닌 고향
모든 인민들의 고향
비록 그곳에서
태어나지 못했을 망정
가지 못하여 애타고
보지 못하여 그리운
한번 가면 길이 살고 싶은
밀어 기쁘고 사랑하는
인류의 고향
모스크바!

- 조기천 「모스크바」 -

천학이란 '고향을 향한 향수'이자 '어디서나 집에 머물고자 하는 충동'이다. 조기천의 시에 나타나는 고향을 향한 향수는 결국 유토피아적 세계-사회주의 세계에 대한 향수였다고 볼 수 있다. '고향을 찾고 싶고 그 속에 머물고자 하는 충동'은 조기천의 사유에 존재하는 역사진보에 대한 확신이며, 이것이 그의 유토피아의식이라 하겠다. <인류의 고향! 모스크바> 즉 소련이 초기 북한사회

의 건설에 있어서 소련은 사회주의 사상의 고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련은 해방자였다. 제국주의를 무너뜨린 소련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며 들어온 참된 인민의 벗으로 그려졌다. 소련이 38이북에서 후견인 역할을 한 해방 후 몇 년간은 미국이 남한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북한 정치권력의 형상을 비롯해 갖가지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을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이 놀라운 풍요의 강국이었다면 소련은 새 인간을 만든 제도의 승리를 이룩한 나라였다. 새 세계는 새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새 제도 아래 새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제시는 곧 민중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지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는 『백두산』에서 ‘인민의 나라’로 표현된다.조기천의 많은 시들에서 등장하는 모든 ‘고상한 인물’은 혁명적 로맨티시스트인 시인이 진정 건설하고 싶은 ‘인민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인물들이다. 또한 이러한 ‘인민의 나라’ 건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신하고 전진하는 생기발랄함을 지닌 인물이 필요했으니 이들이 곧 『백두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군상이다.

세기의 백발을 추켜들고
북으로 찬란한 우랄산을 바라보며
곤륜산 히마라야산넘에
신생의 중국도 살펴보며
중오에 찬 추상을
태평양 거친 물과 부사산에 던지며
백두는 웨친다-
<너, 세계야 들으라!
이 땅에 내 나뭇 세우리라!
내 천만년 깎아세운 절벽의 의지로
내 세세로 모은 힘 가다듬어
온갖 불의를 즉쳐부시고
내 나라를
민주의 나라를 세우리라!
내 뿌리와 같이 깊으게
내 바위와 같이 튼튼케

내 절정과 같이 높으게
내 천지와 같이 빛나게
세우리라-
자유의 나라!
독립의 나라!
인민의 나라!>
백두산은 이렇게 웨친다!
백성은 이렇게 웨친다!

- 뱃음시-

이제 백두산의 후손들은 백두산의 뿌리처럼 깊게, 바위처럼 튼튼하게, 절정 같이 높게, 천지와 같이 빛나게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백두산의 고상함을 그대로 간직한 후손들일 것이다. 이렇게 건설될 나라는 '자유의 나라, 독립의 나라, 인민의 나라'이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제시되는 『백두산』의 여러 인물 군상들이 만들어 낼 세계가 해방공간의 북한사회에서 민주기치론이란 형태로 현실화되면서 공동체 속에 놓여 있는 민족구성원에게 '인민의 나라'는 강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된다.

해방공간의 혼돈의 시기에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해 나가고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서사시적 세계로 나아간다. 일련의 사회개혁을 통해 이 시대만큼은 과연 원시공동체사회의 유토피아적 지향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새 시대에 대한 감격은 해방공간의 여러 시들에서 나타난다. 그 중에서 백인준은 토지를 얻은 기쁨과 감격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그날
할아버지는 몸소 소북단장하시고
십리 길 고개를 넘어 묘지를 찾으셨다

사대를 거느리고 사랑에 앉아
장거리에 가본 것이 십년 전이라더니

그날은 한사코 앞장을 서며
-내가 가야지

-조상님 앞에 내가 가서 고해야지

모 앞에 꿇어 앉아 할아버지는 똑똑이도

-아부님 때부터 울며 부쳐 온

샘터밭 사흘갈이가 오늘이야....

(중략)

할아버지는 그런 말 다아 안들으시고

창문만 쳐다보며 혼자 애기뿐

- 허어 땅을? 땅을 가져 허어

- 내가 죽거든 샘터에 묻어다오

- 허어 땅을? 다 그 어른의 덕이로구나

- 「그 날의 할아버지- 토지개혁의 날」⁸²⁾-

땅을 받은 감격은 해방의 감격보다도 직접적인 것이었고 봉건시대의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땅을 받음으로써 농민들은 새 시대와 새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땅은 농민에게, 공장은 노동자에게, 이 땅의 예술가들이 억찬 리듬을 찾기 위해 자유 노력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억눌려 있던 식민지 시대의 모든 민중이 바라는 진정한 새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 속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를 현실 속의 유토피아로 실현시키기 위해 모두가 개인의 이해를 집단의 이해에 일치시키고, 불완전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경쟁·착취를 조화·협동·사랑으로 대체시키고,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여에 의해서, 또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창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택된 사회질서 속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여러 형식의 공동체의 모습이 해방공간의 유토피아 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를 향해 현실화되어 가는 유토피아적 세계에서는 자아는 세계와 더욱 밀착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우리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것은 곧 '우리'를 지금의 '우리'이게 만들어 준 항일운동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항일운동을 통해

82) 백인준, 『백인준 시선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pp.28~29; 신형기,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p.78 재인용.

해방의 주역이 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해방의 주역이 새 나라 건설의 주역으로 나섬이 당연해진다. ‘가난한 조상의 서러움은 곧 후손들의 울분의 연료가 된다는 것, 곧 민족의 역사적 한은, 역사의 구원을 추동하는 증오와 희생정신은 해방된 후손들의 이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짓밟히고 억눌린 선조들의 이미지에 의해 자라고 북돋아진다’⁸³⁾고 한 말처럼 건설의 주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전대에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과 환란을 되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백두산』에서는 이 해방의 주인공을 김대장과 함께 빨찌산, 모두로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세계 즉 ‘인민의 나라’의 건설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케 한 싸움인 항일운동은 현실세계와 유토피아의 세계 사이의 연결 매체가 되는 것이다.

너 백두야! 조선의 산아 말하라-
어떻게 떨어졌던 태양이
이 나라에 솟았느냐?
떨어졌던 태양이 다시 솟는 그때
네 누구를 맞이했느냐?

세기의 백발을 휘날리며
백두산은 대답한다
<여봐라!
내 말하노니 들으라!
두만강 물결이
포격에 솟아 구름을 헤치고,
준령에 올라선 항일빨찌산-
치명의 철화를 왜적에게 내뿜을 때
떨어졌던 태양이
이 나라에 다시 솟았다!
내 머리 황홀한 흰빛이 흰새이고
내 가슴속 갈피에서
푸른 기류 회오리쳐일 제

83)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민음사, 1983, p.352; 김경복, 「한국 현대시의 설화 수용 의미」, 『한국 서술시의 시학』, 태학사, 1999, p.358, 재인용.

…중략…

내 그때
이 나라 백성이 그렇게 그리던
나의 참된 아들-
나의 량심이고 나의 의지인
나의 신념이고 나의 희망인
나의 빨찌산
김대장을 맞이했다
순선이도 꽃분이도 맞이했다
내 그때-
골짜기와 골짜기, 집과 집
거리와 거리, 광장과 광장들이
서로 얹히고 뭉치며 부둥켜안고
뛰고 춤추고 울고 노래부를제
자유의 기발, 만세소리, 환호소리로
넘치는 감격, 타오르는 애국의 백열로
하이얀 바다같이 뒤끓어흐를제
나도 만고에 없는 큰 숨으로
눌리웠던 허파에 대기를 한껏 들이그어
이 땅의 해방을 부르짖었다!
나의 영생을 부르짖었다!>

- 맺음시 -

일제 36년간은 실로 우리 민족에게는 태양이 사라져 버린 암흑의 시대였을 것이다. 떨어졌던 태양이 다시 솟는 그때는 해방의 시대이며 곧 풀림의 시대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제 강점기의 암흑시대를 열어준 이는 다름 아닌 ‘백두산의 참된 아들, 백두산의 량심이고, 의지이며 희망인 빨찌산들’이다. 그들에 의해 백두산은 이 땅의 해방을 부르짖고 민족의 영생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백두산』에서 김대장과 꽃분을 비롯한 빨찌산들이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항일운동은 잃어버린 낙원의 기억의 재생을 위한 제의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에서의 빨찌산의 인물 구도는 당대 현실과 강한 암유관계를 맺고 있다. 『백두산』에서 제시하는 해방의 주역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는 김일성으로 표상되는 김대장이며, 둘째 철호로 표상되는 빨찌산들, 셋째 민중의 표상이 되는 꽃분이다. 이야기 구조에서 이 세 인물은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서는 서사시적 인물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물의 구도는 사회주의 국가 체계 건설에서 수령과 당과 인민의 삼위일체로 볼 수 있다.

『백두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김일성의 모습은 그가 소탈한 ‘인민의 영웅’임을 드러내었다. ‘그는 인민 속에서 나왔고 인민을 잘 알며 인민의 바램을 대변할 존재였다. 그의 인민적 품모는 그를 이 감격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간상으로 보게 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⁸⁴⁾ 해방공간에서 김일성은 새로운 세계의 포문을 열어준 보은의 대상이었으며,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자질과 덕성을 지닌 존재였다. 이렇게 하여 『백두산』은 김일성을 수령으로서 그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게 된다.

그러나 ‘인민의 나라’ 건설의 구체적인 과제는 민중에게 부여되어진 것이다. 『백두산』에서의 꽃분은 변화 발전하는 민중의 표상이다. 꽃분은 해방의 주역이자 제국주의의 시련 속에서 단련된 인물이다. ‘인민의 나라’는 결국 이처럼 성장한 민중에 의해서 건설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백두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민중적 영웅’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시련을 통해 성장한 민중의 모습과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는 해방공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해방의 서사는 해방공간에서는 ‘절대적 과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된다.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는 ‘인민의 나라’ 건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제국주의 승리에 대한 자부심은 ‘인민의 나라’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새 나라 만들기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현,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의 제시가 직접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민중적 형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백두산』은 가장 민중적인 형식을 취한다.

84) 신형기, 앞의 책, p.21

『백두산』에서의 야기장수 설화는 민족공동체적 심의를 되살리고 민족적 감정을 결집시켜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작가의 이러한 수용 의도는 식민지 상황에서 영웅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민중의 모습과 독자의 일치감을 내어오고자 함에 있다. 그리하여 해방이후 민중의 염원이 현실적으로 실현됨을 의미하면서 공동체적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지니게 된다. 이것은 서사적 동일성⁸⁵⁾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즉 설화적 상황과 자기의 상황을 동일시하여 실존적 자기 동일성의 상황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공동체의 심의 안에서 자기 동일성을 발견한다는 측면에서 서사시의 공동체 지향과 같이 나아가 의미를 깊이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한편 3음보와 민요조 율격으로 서사시의 구술성을 높여내고 있어 서사시의 내용이 민중에게 용이하게 다가서고 있다.

이상으로 『백두산』은 서사시 장르가 가지는 유토피아적 특징을 맘시즘적 유토피아 개념인 사회주의 건설과 잘 연결시켜 줌으로서 서사시 장르로도 성공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85) 설화는 그 이야기성이 갖는 해석 공동체로서 규범이 자리하게 되고 그 규범은 '민족'이라는 단위의 공동심의로서 은연중에 '아와 비아'의 구분을 발생케 하여 민족이라는 단위의 주체성과 자립성의 인식을 불러오게 한다. 설화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의 우리를 우리 조상들의 정감과 결속시키고, 동시대의 타인들과도 생활과 감정면에서 결속시키며, 잃어버린 자연과 신과 모든 대상과 생활공동체로서 얹히게 하며, 동일성을 회복시키고 소외를 극복하게 해준다. 김경복, 「한국 현대시의 설화 수용의 의미」, 『한국 서술시의 시학』, pp.347~354.

V. 문학사적 의의

『백두산』은 비록 북한의 문학사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민족문학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분명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백두산』은 남한과 북한 문학을 통털어 문학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문학사를 더욱 풍성하게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러한 문학사적 의의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백두산』은 서사시 장르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현대 서사시 장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서사시 장르는 1920년대 김동환의 『국경의 밤』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적 모색을 거치고 있다. 70~80년대 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서사시 장르의 성립 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한 답을 『백두산』은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백두산』은 한국의 근대문학이 가지기 어려웠던 서사시적 영웅적인 인물을 그리고 있으며 공동체 문학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던 작품이다. 이것은 『백두산』의 창작이 시대에 대한 응전력을 갖추었기에 가능하였다. 물론 이것은 해방공간의 양면적 성격에 의한 바이다. 해방공간은 자주독립 염원의 좌절은 좌, 우 대립의 상황이 극점에 도달하여 민족 공멸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간절한 축원을 담게 된다. 『백두산』은 이러한 간절한 축원을 절대적 과거로의 복고적 정서를 통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었다. 즉 『백두산』은 작가의 명확한 역사의식과 사회주의 신념의 산물로 근대서사시가 가지기 어려웠던 긍정적 인물과 서사시적 성공을 내올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항일투쟁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민족의 주체성과 정통성을 세웠다는 점이다. 해방공간의 혼란했던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한 항일운동을 통해 민족의 주체성을 세운 작품이다.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해방이 2차 세계 대전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타율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는 점은 해방공간의 어수선했음을 더 고조 시켰으며 우리 민족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시 항일투쟁을 상기시킴으로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초기북한문학에서 그다지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었던 항일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해방에 대한 민족적 정자긍성을 고취시켜 주었다.

셋째, 이후 북한문학의 단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백두산』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북한의 문학은 사회주의 국가의 미학과 같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여타의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많이 가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에서는 혁명의 정통성을 항일혁명투쟁 의식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에서 ‘항일무장투쟁사’를 바라보는 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 항일무장투쟁사는 체제 수립의 근거이다. 침략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쓰는 것이 체제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법이었으며 만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과 우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항일무장투쟁사는 민족의 영웅이자 국가 건설의 지휘자인 김일성의 투쟁사였다. 항일무장투쟁사를 쓰는 것은 수령의 기반을 공고히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백두산』의 창작 당시에는 수령의 체계가 공고히 다져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김일성은 소련 군복을 입고 불쑥 나타난 젊은이가 아니라 항일투쟁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다. 김일성에 대한 일화들은 해방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⁸⁶⁾ 해방과 더불어 시작되는 『백두산』 이전까지의 김일성의 민족해방 서사는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소재로 하는 일화가 창작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백두산』을 통해서 수령형상의 문학의 전형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86) 신형기,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pp.18~19.

VI. 결 론

본 논문은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의 연구가 남한이든 북한이든 정치적 영향에 의해 선택적 오류가 범해지고 있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한 작품의 의미는 해석자의 감상도 중요하지만 분명 창작자의 의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백두산』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창작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을 지어 연구하여 보았다. 이러한 관련을 『백두산』이 해방공간의 현실과 구조적으로 상동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해방공간의 현실과 작품활동 양상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세계관을 파악하였고, III장에서는 그의 세계관을 통해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백두산』의 주제사상을 추출해보았으며, IV장에서는 서사구조에서 담고 있는 주제사상은 해방공간의 현실 속에서는 요구되는 이데올로기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폈다. 그러면서 『백두산』의 이데올로기는 유토피아적 비전으로 제시되어 결국 서사시의 세계와 해방공간의 현실이 상동관계를 가짐을 살펴보았다.

먼저 II장에서는 『백두산』의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 분석에 앞선 기초적 고찰로서 초기북한문학의 동향과 조기천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47년 북한은 토지개혁을 필두로 한 사회제반의 민주개혁이 성공적으로 끝내게 된다. 이로써 정신개조, 의식개조 사업으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펼치며 이의 구체적인 창작방법론으로 고상한 리얼리즘을 제기하게 된다. 고상한 리얼리즘은 북한의 새나라 만들기의 이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창작 방법론으로 이것이 자리를 잡아 나감에 있어서 『응향』과 『백두산』논쟁이 벌어진다. 『백두산』은 고상한 리얼리즘에서 요구하는 '민족적 품성을 가진 조선사람'의 문학적 형상화에 성공을 거둠으로서 초기북한문학의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고상한 리얼리즘은 해방공간의 북한에서 요구하는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사상의 구체적인 창작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새조국 건설을 위해 전국민의 일심단결을 내오는 데 강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이 당시 애국주의는 국제주의와 다름이 없이 받아들여지며, 조기천은 국제주의 사상의 선두 주자로 나서게 된다.

이상의 시대적·문학적 배경 속에 조기천의 창작활동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기천의 문학활동 양상은 해방공간의 북한사회의 시기구분과 명확히 일치하며 그는 해방공간의 현실을 발빠르게 시적 형상화하면서 한 걸음 앞서 민중에게 새로운 사회건설의 희망과 초기 북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었다. 그의 생애와 작품 활동 양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백두산』의 주제사상은 주체문예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수령을 형상화하는 시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관점에서 민중중심의 시각으로 고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사시 『백두산』은 해방공간에서 현실 대응의 논리로서 민중성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주제사상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의 것을 전제로 III장에서는 『백두산』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백두산』의 전체 구조는 아기장수 설화의 확대로 볼 수 있다. 김대장과 꽃분이 표상하는 민중은 아기장수와 아기장수를 기다리는 민중들의 모습으로 대응되며 전체적인 서사구조 또한 장수를 기다리는 민중의 모습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본시의 이야기 구조는 철호의 여정을 따라서 진행이 된다. 여기서는 김대장이 가지고 있는 영웅적인 면모가 길을 따라 꽃분에게 전해지며 이들이 모두가 두 갈래의 길에서 한 곳에 모이는 순간이 이야기의 절정에 달하는 때이다. 철호는 김대장과 꽃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철호의 여로는 꽃분의 각성과 나란히 나아간다. 이 세 인물은 백두산을 근거지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느 한 인물이 결여되었을 때는 서사시적 인물로 고양되기가 어렵다. 이들이 백두산을 벗어나는 H시 진공전투는 구성의 절정에 해당하며 이는 백두산의 절대성이 한반도 전역으로 뻗어 나감을 의미한다. 한편 이 세 인물의 구도는 해방공간에서 수령과 당과 인민의 삼위일체가 되는 사회주의 체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사시 『백두산』은 역사와 허구의 교직으로 이루어지며 당대 현실과 암유적인 대응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에서는 허구적 총위의 이야기가 전면에 나서고 역사적 총위의 이야기는 숨어있는 구조이다. 이는 상상적 총위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민중적 영웅의 강조이며 이는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졌던 민족문학론의 <인민성>과 연관지을 수 있다. 즉 『백두산』은 인민 중심으로 민족적인 것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중심의 주제사상은 인물의 구조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대장은 고전적 의미의 서사시가 지니는 인물의 영웅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인물로 이는 새 시대를 열어 줄 인민이 간절히 기다리는 ‘민중의 영웅’이며 집단과 통합된 공동체적 의식의 고양을 의미한다. 꽃분은 변화, 발전해 가는 민중의 전형으로 ‘민중적 영웅’이다. 꽃분은 H시 야습의 주동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최후까지 살아 남아서 새조국 건설의 또 다른 임무를 안게 되는 인물이다.

이러한 본시의 이야기는 서사시적 시간이 되는 ‘절대적 과거’에 해당하며 『백두산』의 담론 방식은 절대적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의 방식이 서정과 서술의 교섭으로 나타난다. 서사시의 서정은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정서를 같이 독자들이 함께 느끼는 공민적인 것이다. 『백두산』의 담론 방식은 항일빨찌산 투쟁의 승리감을 다 함께 느끼도록 해 준다. 이는 결국 공동체적 결속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백두산』은 장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율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백두산』의 운율은 크게 격음과 경음의 사용으로 파토스적 감동을 표현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3음보의 율격을 가짐으로써 역동적이고 힘찬 리듬감을 형성한다. 가장 큰 리듬의 단위로 절을 기준으로 <세 번 반복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시의 구술성을 높여내고 있으며 민중들에게 쉽게 교양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보인다. III장의 여러 서사적 요소들은 해방공간의 민중들에게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기에 용이하게 만든다.

IV장에서는 『백두산』에 나타난 이데올로기가 유토피아 비전의 제시로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결국 III장의 각 절에서 논의된 서사적 요소와 진술의 방식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막시즘적인 유토피아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민중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백두산』에 나타나는 유토피아적 세계는 한마디로 ‘인민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으며, 유토피아의 구체적인 비전은 당시의 ‘민주기지론’의 문학적 형상으로 볼 수 있다.

V장에서는 『백두산』의 문학적 의의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 작품은 서사시적 세계를 잘 구현하고 있으며 서사시가 갖추어야 할 영웅적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장르적 측면에서 근대서사시의 극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해방에 대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노력을 형상화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셋째, 현재까지 이어지는 북한문학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남한의 문학 독자들에게 『백두산』은 아직도 생소할 것이다. 먼저 가장 큰 낯설음은 ‘수령 형상화’의 문제일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연관성으로 문학에서 그려야 할 내용이 당위적으로 주어짐으로 동일한 내용의 반복 또한 흥미를 끌지 못함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논문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북한문학은 남한의 정치, 문화에 의해 길들여진 남한의 시각으로 선형적 비판을 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아무런 비판 없이 바라보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족의식에 입각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분단이라는 개념 속에는 민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제는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 서로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더욱 더 진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자 료

- 김철학, 『북한의 대표적 서정시』, 한빛, 1995.
- 송기환 편저, 『문학문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1.
- 조기천, 『백두산』, 로동신문 출판 인쇄소, 1959.
- _____, 실천문학사, 1989.
- _____, 『로동신문』 1985. 5~6.
- 중앙문화협회, 『해방기념시집』, 1945.
- 『해방후 서정시 선집』, 문예출판사, 1979(북).

단행본

- 강홍기, 『현대시 운율 구조론』, 태학사, 1999.
- 권순궁, 정우택 편, 『우리 문학의 민족 형식과 민족적 특성』, 연구사, 1990.
-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6.
- _____,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7.
- _____, 『북한의 문학』, 통일문제연구7, 1990.
- 김남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5』, 한길사, 1990.
- 김대행, 『북한의 시가 문학』, 문학과 비평사, 1990.
-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연구』, 일지사, 1991.
- 김육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6.
- 김윤식, 『한국문학 양식 논고』, 아세아문화사, 1980.
- _____, 『문학사와 비평』, 일지사, 1975.
- _____, 『한국문학의 근대성 비판』, 문예출판사, 1995.
- _____, 『운명과 형식』, 솔, 1998.

- 김용직, 『해방기 한국 시문학사』, 민음사, 1992.
-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 김준오 외, 『한국 현대 장르 비평론』, 문학과 지성사, 1990.
- _____, 『한국 서술시의 시학』, 태학사, 1999.
- _____,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 지성사, 2000.
- _____, 『시론』, 삼지원, 1999.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 _____,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사, 2000.
- 김재홍, 『현대시와 역사의식』, 인하대 출판부, 1988.
- 김하영 외, 『조선문학통사3』, 이회문화사, 1992.
-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6.
- 리동수, 『북한의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연구』, 살림터, 1992.
- 리동원, 『문학분석론』,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5.
- 리정구, 『시인 조기천론』, 문예총출판사, 1953 (영인).
- 목원대 국어교육과, 『북한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2.
- 민병욱, 『한국 서사시와 서사시인 연구』, 태학사, 1998.
-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5』, 창작과 비평사, 1991.
- 박기훈 엮, 『사실주의 서정시 강좌』, 이웃, 1992.
- 박종원·류만, 『조선문학개관Ⅱ』, 북한:사회과학원출판사, 1986. 남한:인동(영인), 1988.
- 박태상, 『북한문학의 실상』, 깊은샘, 1998.
- _____, 『북한문학의 현상』, 깊은샘, 2002.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하』, 북한: 과학원출판사, 1959. 남한:인동(영인), 1988.
- 사회과학연구소, 『조선문학사4권 1945~195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 신우상열, 『광복 후 북한현대문학 연구』, 역락, 2002.
- 성기옥, 『한국시가율격의 이론』, 새문사, 1999.
- 성기조, 『북한비평문학 40년』, 신원, 1990.

- 송희복, 『해방기 문학비평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 신승엽, 『민족문학을 넘어서』, 소명, 2000.
- 신형기, 『해방 3년간의 비평연구』, 세계, 1988.
- 신형기 · 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 여홍상 편, 『바흐친과 문화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7.
- 오탁번 · 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 출판부, 1999.
- 우한용, 『한국현대소설의 구조 연구』, 삼지원, 1997.
- 유종호 · 김윤식 외, 『한국 현대문학 50년』, 민음사, 1995.
- 윤재근 · 박상천, 『북한의 현대문학Ⅱ』, 고려원, 1990.
- 이선영 · 김병민 · 김재용 편, 『한국문학비평자료집』 1권, 태학사, 1993.
- _____, 『한국문학비평자료집』 2권, 태학사, 1993.
- _____, 『한국문학비평자료집』 3권, 태학사, 1993.
- _____, 『한국문학비평자료집』 8권, 태학사, 1993.
- 이형기 · 이상호, 『북한의 현대문학Ⅰ』, 고려원, 1990.
-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7.
-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집문당, 1992.
- _____,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_____,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 _____, 『한국 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2.
- 최유찬 · 오성호, 『문학과 사회』, 실천문학사, 1994.
- 한국문학연구학회, 『한국문학, 파시즘과 인민주의』, 국학자료원, 2000.
- 황청일 편, 『백두산의 전설(Ⅰ)』, 민족문화(영인), 1995.
- 홍기삼, 『북한의 문예이론』, 평민사, 1981.
- 홍성호, 『문학사회학, 골드만과 그 이후』, 문학과 지성사, 1995.

국내논문

- 김영진, 『한국 근대 서사시의 전개 양상 연구』, 전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영철, 「산문시와 이야기시의 장르적 성격 연구」, 『인문과학논총』, 1994.
- 김우창, 「신동엽의 금강에 대하여」, 『창작과 비평』, 1968. 봄호.
- , 「어두운 역사의 서사시」, 『문학사상』, 1975. 3.
- 김종길, 「한국에서의 장시의 가능성」, 『문화비평』, 1969. 여름호.
- 김형철, 『한국 현대 서사시의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홍기, 『한국 현대 서사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김창수, 『한국근대 서사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문선영, 「1950년대 전쟁기 장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박인구, 「아기장수 전설의 유형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신동호, 『한국시에 나타난 백두산 상징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서정학, 『한국 현대 장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서준섭, 「한국 현대시에 있어서 장시의 문제」, 『심상』, 1982. 5.
- 이경업, 『장수전설의 전승양상과 전승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종윤, 「분단시대의 서사시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이 훈, 「한국 근대 서사시의 갈래 성격에 대하여」, 『목포어문학』, 제2집.
- 우대식, 『해방기 북한 시문학』,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임성규·윤석우, 「서술시의 장르적 특성 고찰」, 『논문집』, 제21호, 목포대학교, 1997.
- 염무웅, 「서사시의 가능성과 문제점」, 『한국문학의 현단계Ⅲ』, 창작과 비평사, 1982.
- 오세영, 「국경의 밤과 서사시의 문제」, 『국어국문학』, 제75호, 국어국문학회, 1997.
- 장부일, 「한국 현대장시의 전개양상 연구」, 『논문집』, 제21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6.
- 장윤익, 「한국서사시의 장르에 대한 연구」, 『논문집』, 제6집, 인천대학교, 1984.
- 조남현, 「파인 김동환론」, 『국어국문학』, 제75호, 국어국문학회, 1997.
- 조성기, 「해방기 시문학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허아람, 『한국 현대 서술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홍기삼, 「서사시의 실제와 가능성」, 『문학사상』, 1975. 3.

국외논저

토도로프 외, 『장르의 이론』, 김현 편, 문학과 지성사, 1994.

까간, 『미학강좌1』, 진중권 역, 새길, 1989.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85.

레이몬드 윌리엄스, 『이념과 문학』, 이일환 역, 문학과 지성사, 1998.

리몬 케넌, 『소설의 현대 시학』,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9.

만하임,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임석진 역, 청아출판사, 2000.

미셸 제라파, 『소설과 사회』, 이동렬 역, 문학과 지성사, 1994.

바흐친,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 역, 창작과 비평사, 1988.

———, 『문예학의 형식적 방법』, 이득재 역, 문예출판사, 1993.

엔터니 이스톱, 『시와 담론』, 박인기 역, 지식 산업사, 1994.

伊東勉,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 서은혜 역, 세계, 1990.

여홍상 편, 『바흐친과 문화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5.

윤 에르하르트, 『마르크스- 레닌 미학 입문』, 임홍배 역, 사계절, 1988.

제랄드 프랭스, 『서사학』, 최상규 역, 문학과 지성사, 1995.

토도로프, 『산문의 시학』, 신동욱 역, 문예출판사, 1998.

폴 머찬, 『서사시』, 이성원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폴헤르나디, 『장르론』, 김준오 역, 문장, 1983.

프리슬렌제로, 『러시아 리얼리즘의 시학』, 이항재 역, 문원출판사, 2000.

프레드릭 제임슨, 『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 여홍상 역, 창작과 비평사, 1984.

페터 뷔르거, 『미학 이론과 문예학 방법론』, 김경연 역, 문학과 지성사, 1987.

피에르 지마, 『문학의 사회비평론』, 김태환 편역, 태학사, 1996.

헤겔, 『해겔미학』, 두행숙 역, 나남출판, 1996.

A study of 『Baekdusan』 of Cho Kee Chun

- Focus on structure and ideology analysis -

Jee-Sun K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u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n 『Baekdusan』 of Cho-Kee Chun. He was a figure who was in the roll of th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after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He was so moved by the progress of building up Russian socialism that would act on great power in establishing of North Korean socialism. His literature positively presented a hope of establishing a new world as a party's. And it had extremely influence on the north korean literature formation.

This thesis was written with subject idea that South and North Korean had committed 'selective fallacy' that they had researched into 'Baekdusan', this epic poem's writer is 'Cho-Keechun' and it means one of Korean mountains, by political interference.

To understand meaning of some literature work, we should consider writer's intention rather than expounder's impression. So for this paper we research 'Baekdusan.' connecting with historic background at that time.

In conclusion, 'Baekdusan' has constitutively same relation with actual space of the Korean Liberation.

Therefore, chapterⅡ in this paper has a studying about his(Cho-Keechun) view of the world through his writing activity and realities of the Korean Liberation. In the chapterⅢ we analyze its epic constitution through his view of the world and extract a subject of 'Baekdusan'. Next, chapterⅣ contains how a subject idea in

epic constitution is expressed in requiring ideology in the reality.

On the other hand it also includes an ideology of 'Baekdusan.' is presented for utopianism and after all epic poem world is similarly related to realities of the Korean Liberation.

There are arguments of writing methodology about 'Elegant-Realism' in North Korean as a literature tendency associated with 'Baekdusan.'

In 1947, North Korean government finished successfully a social democratic revolution following land reform. Hereby they drove a campaign with the combined efforts of the whole national member for awareness training. As a result they presented Elegant-Realism for the campaign. Elegant-Realism strongly reflected ideology of making a new world and its taking firm root gave rise to argument about 'Eunghyang' and 'Baekdusan.'

In addition, Elegant-Realism was a concrete writing method that North Korea needed patriotism and international ideology. Such a ideology strongly affected at concentration the people's thought for establishing a new country.

A meaning what to be able to know by Cho-gichun's life and writing activities is that a subject in 'Baekdusan' is hard to regard as making a big figure of the 'Suryung, a great leader or hero. And we should understand it as popularization in the Marxism-Leninism point of view.

Consequently 'Baekdusan', epic poem, should be taken for having a subject to emphasize necessity of populace. A most part of construction of 'Baekdusan' borrows motive from the 'Baby general', is a Korean tale, with Korean national mental image and it strengthens the unity of the community. And it is a construction of the process that a general Kim's heroic character gets to be delivered to the girl, a Kkotbun.

'Baekdusan' is formed of fiction in combination with history and it makes a correspondent connection metaphorically. It can be related to 'populace nature' in national literature was formed in the Korean Liberation space.

That is to say that 'Baekdusan.' expand nationalism with populace as the central figure. This subject idea is obviously revealed to character construction. General Kim is the 'popular hero' who populace is looking forward to the man and he

has a meaning in exaltation to community spirit. Kkotbun is a changed hero and developed popular hero as populace's typical representative. She take a main duty to attack H-city at night.

This story is a 'absolute past'. And the way of discussion in 'Baekdusan.' is to make the present time of absolute past. Such the way expresses combination in purity and description.

The purity of epic poem is a civil thing that readers feel together in a story. This way makes that they was conscious of the success about the anti-Japanese partizan movement. After all it strongly makes to get united community spirit.

This principle is found in a rhythm. It was written in moving pathos by using other sounds and light sounds. And it makes a powerfully dynamic rhythm with rule divides each verse into three parts. It applies 'Three times repeat', it's a main rhythm on the basis of a verse. Such a setting-up makes verbal action comfortable and it become a ideological part to come up easily to populace. As stated above several epic elements is presented to populace as a ideology in the Korean Liberation space.

In a word, the utopia in 'Baekdusan' means populace's country, and its concrete vision is likely to be literary form to come from a 'Democratic base theory'.

As discussed above, we've considered three literary meaning in 'Baekdusan'

First of all 'Baekdusan' gives a concrete expression to the world of epic poem as overcoming modern epic poem ,and it describes a hero whom epic poem must include. secondly it raised a national pride by means of forming national independent effort about the Korean Liberation. And the its last value is that built on form of North Korean literature is continued on now.